

增修無冤錄諺解

卷一

其二

朝
31
4



吉 4
31
4

스르니 그 뜻은 고사름을
고르니 이 세상은 이러라

檢覆總說

刑名之重。莫最於殺人。나獄情之初。에必先於檢
驗。나蓋事體多端。고情態萬狀。나有同謀共毆而莫
知誰是下手重者。며有同謀殺人而莫定誰爲初造
意者。며有甲行兇而苦主。一與乙讎嫌而妄執乙行
兇者。며有乙行兇而令在下之人。로承當者。나毫釐
之差。에謬以千里。라

檢檢覆복흐는대 총말이라

刑형名명의重중함이殺살人인에셔 마장흐니

업스나獄옥情정의初초애반드시檢甘驗형에
 몬져홀더나대거事사體테엇티만코情정態테
 만가디형상이나홀야홀가디로씩홀야홀가디
 로려시되누이손짓기룰미이호줄을아디못홀
 도이시며홀가디로씩홀야사람을죽여시되누
 처엄으로造조意의의사라단 호인줄을定딩티
 못홀도이시며甲갑이行행凶흉사름죽이홀야
 거늘苦고主주이시라친乙을과讎슈嫌협원수와
 이라말홀야허망히乙을을行행凶흉이라잡느니
 도이시며乙을이行행凶흉코셔在在下하호사

름 슈하사으로 하여금 바닷當舖에 이르러

시니 毫釐聲이 만치 차차 흠애 千錢里리로 글러

다느니라

稱寃重囚 一多爲檢屍時 司縣官이 不行親去監

檢 고轉委吏人等 야止憑作行人 의檢到傷損致

命根因 고覆檢官吏恐檢驗不同 야暗囑初檢人等

야抄錄屍帳 야雷同回報 曰本處官司 一又不照觀

所驗 實與不實 고憑准檢狀及元告人指執 可捉

事人疑詞 야將涉疑人 야非法鍛鍊 야須要承服 可

本人 이不任勘問 야虛行招說 야致有寃抑 라一或

差互_년利害不小_년

稱_칭寃_冤寃_원호는重_중등囚_유슈_수 | 만히檢_검검屍_시시호_호씨

예司_司縣_縣현_현이_이와_와외_외官_官관_관이_이親_친친_친히_히가_가검_검험_험을

監_監감_감호_호디_디아_아니_니코_코吏_吏리_리人_인인_인等_등의_의게_게구_구울_울녀_녀맛

저_저다_다만_만件_件오_오作_작작_작과_과行_행행_행人_인인_인호_호는_는작_작은_은쇄_쇄상_상이_이오

의_의검_검험_험호_호야_야온_온傷_상상_상損_손손_손이_이며_며致_치치_치타_타命_명명_명호_호根_근근

因_인인_인실_실인_인을_을의_의빙_빙호_호고_고覆_복복_복檢_검검_검官_관관_관吏_리리_리는_는검

험_험이_이주_주디_디아_아니_니호_호사_사저_저허_허마_마만_만이_이初_초초_초檢_검검_검人_인인

等_등의_의계_계청_청족_족호_호야_야屍_시屍_시帳_창창_창을_을벗_벗겨_겨다_다雷_뢰뢰_뢰되

同_동동_동호_호말_말은_은주_주리_리호_호야_야回_회회_회報_보보_보호_호면_면상_상사_사에_에보_보호

本_본處_處 官_官 判_判 司_司 상사 一_一 佐_佐 驗_驗 訥_訥 實_實 실_실 訥_訥

며 實_實 실_실 티_티 아_아 니_니 를_를 슬_슬 피_피 디_디 아_아 니_니 고_고 검_검 험_험 訥_訥 문_문 장_장 과_과

다 訥_訥 元_元 권_권 告_告 고_고 人_人 인_인 의_의 指_指 지_지 執_執 證_證 마르려 단_단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執_執 事_事 人_人 인_인 형흉 事_事 人_人 인_인 의_의 指_指 지_지 執_執 證_證 잡는 의_의 心_心 심_심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證_證 訥_訥 實_實 실_실 疑_疑 의_의 訥_訥 實_實 실_실 人_人 인_인 의_의 心_心 심_심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아_아 니_니 로_로 鐵_鐵 단_단 鍊_鍊 련_련 최너 단_단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기_기 를_를 요_요 구_구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면_면 디_디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원_원 柳_柳 의_의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그_그 訥_訥 實_實 실_실 과_과 捉_捉

檢屍程式。各有期限。過期屍壞。止憑勘當。

定執致命根因。作弊之人。窺見官司。別無

關防。遂生姦計。遇有大死。或欲報仇。或欲

圖財。便行經官。告稱被人打死。或稱與毒

藥身死。經停月日。俟屍潰爛然後陳告。

差官檢覆。已是屍壞。止憑仵作行人。虛捏喝

起。便行追問。貧民下戶。因權豪苦虐。非命

而死者。苦主被其攔截。官吏因受計囑。抑

遏不能告官。及至事發。却以屍壞為詞。且

不復檢驗。須要應期。依式檢驗。

檢屍屍시호는程形式라 법이이과과期과限호

이잇거늘과호을디내여屍시과과안호야시면

다만勘當當당터 무러이라호을의빙호야致다命

명호根근因인을定명호야잡으니弊피를짓는

사룬이官판司소別별노막음업슴을엇보고

드디여姦간計계를내야만일사름죽으며이시

면或 후원슈를갑고자호며或 후지물을도모코

자호야은득판가에경유호기를行행호야놈의

게터죽임을넌엇다告고稱칭호거나或 후毒毒뒤

藥藥을주어身身死死호다稱칭호되되과과날을

죽여죽음이하여디고석기틀기드려그런後후
에陳던삼고호면관원을치명호야檢검覆복흙
아블셔이죽음이문허뎡는다라다만件오作작
과行항人인의헛되이죽모화성언호는것만의
빙호야문득잡아뭇기를行행호며貧빈民민이
며下하戶호權권豪호의품고케호며虐학호
임을困인호야非비命명에죽은者자를삼고主
주그악즈르를넙고官관吏리計計嗚추청
호라말바들을困인호야놀리이고락히이여能
능히삼고官관탄티못호얏다가밋일이發발호기

에니르매문득시신이 문허져심으로말을삼고
다시檢覈驗함티아니흐니모름이귀호에應
하야법대로檢覈驗함흐니라

檢屍過時不發或等待上司行關或稱已承他

處公幹差遣或應牒鄰近而牒遠者或應驗而

不驗或不明定要害致死之因或定而不當

或漏泄驗狀情弊紛紜不能槩舉理宜明定

罪例通行遵守
此條本文與我國事
例左能就其文特略有

改正을如
此特노

檢覈屍시흐음을써디나도로발함티아니흐야或

후上 상司司의行행關관을等待待하_고며或후

본셔다_고문곳에公公幹간으로시거보내물바닷

노라일크_고며或후응당히이웃갓가온디牒_고첩

이문_고한야복김_고만청_고하_고단말이라_고하_고암즉하_고거늘먼디를牒_고첩하_고

며或후응당히김협하_고암즉호_고디김협티아니하_고

며或후要_고요害_고해致_고티_고歿_고스호실인을분명히定

명_고티아니하_고며或후定_고명호_고디當_고당티아니케하_고

며或후_고김협호문상을漏_고루泄_고설하_고야간정과_고폐

단이紛_고분紜_고운하_고니能_고능히일개로드지못하_고논

다라스리_고맛당히罪_고죄例_고례_고의_고김_고시_고관_고라_고를_고복_고히_고定_고명

호야通行 할호야말미암아뒤회염주호니라

此大條五本本文是이我가 國事소何려
와相告左자호서그글에나야가 략간改리正정

호야두물이
러호노라

檢屍有定期야不容少緩나或值鄰近官司

有故而他官守宰一過去境內則本官이牒

請覆檢 이 道內四鄰官이有故而
他道官接隣者 同也 卽 國朝故

事 이 今廢而不舉나 理宜飭行라 이 나

檢甘屍시定명호귀호이이셔잠간도지

완키를용납디못홀퍼시나或혹鄰近近

잇官관司소一연고잇고다룬고을원 동도
인고

이온원 이境內에디나감을만나거든本

本官판이문첩하야覆부檢검을請청하느

거시道도內內四스都都인官官이연고이시

나라곳國朝호에네일이어늘이제廢

하야行행하얌즉하나라

重刑枉直이在推詳事頭하凡檢驗屍傷에衆証器

仗顯然하易於結案者도猶不免變亂情款은若

初不訟官直待身死然後方告하或因他疾而

死하或事涉曖昧하不願進告하屍已燒埋어里正

人等。計囑縣吏叶妄投詞狀叶又有妄以驚死老

幼及自傷殘害叶故行謀賴叶人家與雇人及負債

不得財叶往教唆陳告叶胥吏堯攬受理叶官

亦貪求叶從而檢驗叶或以屍首發變青赤顏色叶

妄作生前傷痕叶改變是非叶鍛鍊成獄叶或放火

蹤跡。不明叶或被強盜之類叶吏卒叶教令事

主叶妄指平人叶因而破家叶致有拷訊而死叶今

後叶有司卜遇有人命公事叶審問是叶否五服內

親及致死緣由叶若是親屬叶的有冤濫叶方許

受理叶若其告人叶不係其親屬叶或稱親戚叶

私人이라代告이及里正主首申聞之類及不見

成者의冤濫情節은無得理問고或潑皮有讎怨

或誣告平人의窺害人命은追問及坐고果有身

死不明者의實無親戚人等은許令鄰佑地主과

或里正頭目의從實申官의依理追問라

重중호형옥의굽으며바름이일초두덜밀위어

주세히흥애이시니를윗屍사의상쳐를檢日驗

형흥애여러간증과罷라仗당거살게인라호이顯현然

연호야結日案안을죄인이승복호야문안호기쉬

은者자—라도오히러情정欸관을變번亂란호

기에免면티못훈거시온안일이이에訟訟官판
 리아니코바로身신死스흐기틀기드린然然後
 후에보야흐로告고하며或후다룬병을因인하
 야죽어시며或후일이분명리아녀進진告고함
 을願원티아니코시신을이의燒소흐거나화장
말이埋埋하얏거놀로리正정人인等등이縣현
 吏리를게교로청속하야허망히詞詞狀장을더
 디며또허망히놀나셔죽엇는들은이며어린이
 와놀나죽은거스급거하야밋스스로傷傷히와
병든죽엄파다르니라殘殘害해하니로써집죽섹하야힘나음을行행

호면 사름의 집의 면당 호고 공이 와 能히 감디 못호者

不을 호야 죽으면 그 放去黨당의錢전

陳단 告 아 전 이어 우 루 쳐 잡아 다 스 리 며 관

원이 호 호 貪 求 호 야 드 트 여 檢 驗 험 호 며

或 호 屍 시 首 首 發 變 변 호 야 프 르 고 불어 딘

빛 스 로 베풀 허 망 히 생 생 前 前 엇 傷 傷 흔 을 삼 아

是 사 非 비 를 고 터 變 변 호 야 鍛 단 鍊 려 호 야 成 성

獄 옥 호 며 或 호 放 방 火 화 호 蹤踪 跡적 이 불디 못

호 거 나 或 호 強 강 盜 도 만 난 는 類 류 를 吏 리 卒졸

이 사 소 主 주 고 刑 를 마 르 쳐 시 거 허 망 히 平 평 人

인을지목_한야_아인_인호_야집을破_파호_며拷_고訊

신_덕말_어이라_라호_야죽음이잇기에_닐위_니이_전後_후

는有_유司_스만일人_인命_명公_공事_스잇거

든五_오服_복안_헛친_속일시_을호_며아_님과_및致

리_歿호_緣연_由유_를상_심호_야무_러만_일이_親

친屬_속이_오덕_실히_冤원_濫람_함이_잇거_든보_야

호_로許_하야_바다_다스_리고_만일_그告_고호_사

룸_이제_親친屬_속에_미이_디아_넛거_늘或_혹親_친

戚_척의_私人_인이_로라_일크_러더_신호_야告_고

호_거나_밋리_正정_위과_主주_首슈_동리_소의

申 聞 문

고하단 申 聞 文 類 有 及 以 死 者 之 冤

濫 情 節 節 將 을 보 디 못 ㅎ 엇 디 든

음양고
홀사름

이라도분명티 다 小 려 못 디 말 고 或 후 淺 淺 皮 皮

아니호일이라 비 무 라 一 讎 讎 讎 讎 이 이 서 平 平 人 人 을 誣 告 고

하 야 人 人 命 命 을 害 害 하 려 었 디 든 追 追 問 問 은 ㅎ

야 反 反 坐 坐

법에 죄를 도로 하여 무고호사름을 주는너

하 고 과 과 然 然 身 身 死 死 하 기 를 不 不 明 明 히 ㅎ 者

자 一 一 잇 잇 고 實 實 실 親 親 戚 戚 엿 人 人 等 等 이 업 거

든 許 許 하 하 야 鄰 鄰 린 佑 佑

이웃사라와地다조슈 友 友 이 矣 矣 와 地 地 다 主 主 슈 處 處 은

저 爾 爾 와 或 或 辱 辱 리 正 正 聲 聲 과 頭 頭 두 目 目 목 宗 宗 위 矣 矣 실 實 상

대로 판스에 신문하게 하야 법리대로 잡혀 못게
하라

檢驗一事 | 若有大段疑難 면이 須當廣布耳目以合

之 라 庶幾無誤 | 如聞毆限內身死 호 痕損 이 不明

若有病色 오이 曾使醫人師巫 로 救治之類則多因

病患歿 니 若不訪問則不知也 라 然 이 亦不可專任

一人 오이 仍宜善使之 니 不然 면이 適足自誤 라 | 니

檢檢驗 할 一 일 事 스 | 一 만 일은疑 의 難 난 이 이 시

면 모름이 맛당히 耳 의 目 목을 너 비 퍼 베 습 합 려

사람의 말을 아침이 라 하야 사 거 의 그릇 음 이 업 스 리 니 만

라스스로 그릇된 만이니라

凡檢覆後에體訪得行凶人事因야不可現之公文

者는이面白上官야使知曲折면이庶易鞫勘다이니

를잇檢檢覆복호後후에行형凶흉人인의일근

인을體體訪訪방스단말이라호야可가히公公文

문에드러나디 못호거시어든上상官官판의게는

츠로슬와曲곡折折절을알게호면거의국문호야

감단호기쉬우니라

凡檢屍不過條例所錄이然勒殺이類乎自縊고溺

歿一類乎投水고鬪毆야有限內致命而實因病患

身死

허

人力女使

一因被捶撻

허

在自家自害自縊

之類

一理有萬端

허

並爲疑難

라

臨時審察

고

切勿

輕易

라

들잇檢甘屍시 一條도例례예 기록호바에디나

디아나흐나그러나勤_을殺_살 죽인거시라야自

縊_의 스스로 목터과又고溺_의 死_스 바다에

사_인라기 一投_두 水_슈 스스로와又고빠화터고호

안히죽어시되實_실은病_병患_환을因_인인_인호야죽

으미이시며人_인力_력 종놈이여女_녀使_사 종년

一 捶_슈撻_달 터말_말 一 讞_음을因_인인_인호야主_슈家_가

에이셔스스로害해호며스스로縊호類유
 정리萬안端안이나홀이이시너다疑호難호이
 되느니라臨臨時시호야조세히슬피고부더輕
 경易이히말게호라

凡檢驗屍首에指定作被打後에服毒或自縊或投

水身歿之類는最須見得親切이라方可如此定執

世上에多有打歿人後에以藥灌入口中고誣

以自服毒者亦亦歿後에用繩弔起고假作生前

自縊者亦亦歿後에推在水고假作自投水者나

一或差互호利害不小라今須仔細點檢호有可憑

實跡

사이라方可辨明라이니

물잇屍시首슈를檢甘驗범홈에指지定명호야
被피打타호後후에毒독을먹엇다거나或후自
不縊의호였다거나或후投루水슈身신歿스를
삼느類류느マ장모름이보기를親親切切히호
야사보야호로可가히이리定명執잡할며나라
世世上생애만히사름을려죽인後후에藥약으
로써口구中中에부어녀코스스로服복毒毒홈
으로무고호느者자도이시며또호죽은後후에
노호로버미야돌고거죽生生前前自不縊익을

삼는者_자도이시며또호죽은後_후에밀려물에
두고거죽스스로投_투水_수슌_슌을삼는者_자도이
시너흐나히나或_혹어긋나면利_리害_해적_적디아
난디라이제모름이仔_자細_세히點_점檢_검히야
可_可히빙고홀實_실跡_적이이셔사보야흐로可_可
히곧히야보힐디니라

凡_凡體_體問_問必先喚集鄰證_야及_及覆審問_야歸_歸一捧招_招
或見聞_이參差_티어令各取招_고或併責行兇人_人
供辭_야一併粘申上司_디若憑吏卒開口_면卽是私_私
意_니須多方體訪_야務令參會踏_고一不可憑一二

大口說야便以爲信이及備三兩紙供辭야謂可塞

責이況其中不識字者나招辭나多出吏手야鄰證

或與凶身로是親故及暗受買囑符合나不可

不察이나

물잇體테問문 슬퍼말이라 탄호애반드시몬져鄰란

證증 질증이라 과간 을불너모화反반覆복호야저세

히무러歸귀 일 어러러 이라 호기료소톨바드되

或혹보며듯느거시어긋나거든호여곰각각取

辦招조호고或혹行행凶흉人인의供公辭소를

탐호야취척호야홍식上상司시에첩련호야산

보호티 만일 吏라 卒졸의 開口 ㅎ ㅎ 만의 빙호

면 곳이 는 스 스 뜻 이 너 모름 이 여러 가 디 體 則

訪 방 호 야 호 여 毋 參 參 會 회 회 서 르 섯 거 보 歸 기 一

일 키 를 힘 쓰 고 可 가 히 一 일 二 이 人 인 의 口 ㅎ 說

설 만 의 빙호 야 末 得 버 및 淸을 삼 으 며 및 三 삼 兩

봉 紙 자 供 공 辭 스 를 ㅎ 초 아 可 가 히 塞 석 責 責 호

라 라 호 디 못 호 디 라 호 물 며 그 가 온 대 글 지 모 르

는 者 자 는 招 招 辭 스 一 만 히 아 전 의 손 에 나 며 鄰

린 證 증 이 或 혹 凶 흉 身 身 살 인 법 이 親 과 이 親 친 故 고

一 어 나 및 ㅎ 만 이 買 마 囑 囑 제 卷 로 칭 唢 을 및 고

부동하야 삼함하느니 可가히 술피디 아니티 못
혹거시니라

凡檢驗承牒之後 不可接見在近官員秀才術人
僧道以防姦欺라니

물잇檢甘驗함흥어 문첩을 바든後후에 可가하

갓가이잇는 원고원척위의 官官員원과 秀秀才

저 선벽와 術술人인 사잡술라 는과 僧僧道도 등과

라 라를 接접見견티 말아 배간사와 소미를 막을디

니라

凡檢驗官 이 遇經宿處 의 須問其家 의 與凶身及

苦主로 親戚是否고 方可安歇야 以別嫌疑라

를 잇檢檢驗官관이經경宿宿홀홀뜻을 만나거

든 모롬이 그 집이凶흉身身과 밋꿈고 주류로더

브러親친戚척이며 아니 들뭇고 보야흐로可가

히며므러쉬여卽嫌嫌疑의를 분별케호라

檢狀을 一一親手填註고 毋得假手吏胥야 以備

推勘고 或有不得姓名人屍首야 其親屬이 追後呈

告者는 須驗狀証辨니 至若獄囚軍人無主死人도

驗狀을 尤須詳慎이 不可稍有疎略라 이니

檢狀장을 일일이親히손으로여위

註수 돌고吏리胥셔의게 손을 비러버推슈勘감

추문호야마감을준비티말고或후姓名명을

엇디못호는사룸의屍사首슈이셔그親親屬

속이追추後후호야로명告고호는者자는모름

이驗현狀상으로증거호야존힐디너獄옥囚슈

와軍軍人인문님자업스人인에너르러

도驗驗狀장을더옥부디조세히삼갈면서오可

가히려기도疎소略략함이있다못호디너라

若昏夜被殺야見証無人及屍無下落者는只宜

密訪의不可妄意猜疑야鍛鍊成獄다

만일 어두운 밤에 被_レ殺_ル 살_고야 見_レ証_을 증_을 홀
 사_가름이 업스며 밋시신 이 下_하 落_락 이 업스_고 간 곳
 이_단 者_者 자_는 다 만_만 당_당히 비_비 밀_밀히 次_次 자_자 무_무를 꺼_꺼 시
 오_오 可_可 기_기 히 恣_恣 망_망 意_意 의_의 로 寤_寤 烝_烝 亨_亨 며 의_의 실_실 亨_亨 야 鍛_鍛 단
 鍊_鍊 련_련 亨_亨 야 獄_獄 옥_옥 을 일_일 우_우 디 甞_甞 홀_홀 따_따 니_니 라

檢式

검_검 험_험 亨_亨 式_式 이_이 라



此條 卽一篇之骨子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目 此條 卽例門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目 此條 卽例門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目 此條 卽例門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目 此條 卽例門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目 此條 卽例門也 凡條例門諸條 更有檢式 卽多見本條 宜參考

檢屍官。不得先到屍處

고於上風

坐定

고令燒
라自角

蒼木特以辟穢氣也或以真麻油塗鼻
孔邊也或以菴合元以塞鼻孔亦可也

檢屍官尸官관이屍시處처에몬져너르디못호

고 응당 무를 사롭과 호가 必람웃편에坐좌定定

호라 호여 품을 조角과 蒼木을 뒤와 버디
러운기운을 물너티게호라 或후츄기를

元 으로 비호쿠 무가 되겨나 或후 燕소 합
으로 비호쿠 구갈막음이 또 호可가 호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司吏○干犯人○干證人○切鄰人○正犯人○

主首人○屍親○伴作○行人○醫律

檢甘屍시터히령령뒤후호人인吏리等등

이라

司吏리 아전 ○干간 犯범 人인 우스에干간

잇는 사 ○干간 證증 人인 본소물아는 ○切절

鄰린 人인 적절린훈집사름이라 ○干간 證증 人인 오인인에디

내다 말 ○正정 犯범 人인 살인인 ○主주 首首 告告

人인 死소인인잇는 ○屍屍 시 親친 死소인인의

發發 狀狀 장 호 ○作작 작 작 我十國字鎖해 ○

行함 人인 表아類유 ○醫의 律律 律律은醫

나 眞전律官간이니 首首 告告 領領官간이라

隨行人吏及干連人 이 多賣弄四鄰 야 先期縱

其走避고只捉遠鄰나이어或老人婦人及未成

丁人야塞責고又有行凶人이恐要切干證人

直供야故令藏匿고自以親密人로合套誣證

不可不知라

설와갓는아전과잇는連連人인이만히

四人鄰인을소기며조롱하야선물밧고견

말이라先期하야그드라나피하게

노코다만언의웃이어나或후老로人인과

婦人인과成성丁당티못호사름아히을

잡아塞責하고佐行하凶흉人인이要

切요절 호干간 證증人인 이 바로 공수 할까
저허 짐 죽 곱 초아 숨 게 호고 스스스로 親 眞 密
빈 호 사 름으로 버 거 죽 거 술 주 합 호야 소겨
증 참 호이 잇는 니 리 가 히 아 디 아 니 티 못 호
더 니 라

應用法物

酒○糟○醋○初春與冬月은煮醋炒糟를令熱

○仲春殘秋는宜微熱라이 니 ○夏秋間은糟醋

微熱이以天氣炎熱라이 恐傷皮肉라이 니 ○秋將

深則用熱이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加火煖라

酒주 술이 ○糟조 이라 ○醋조 초라 ○初초春

춘과다 못冬동月월은 초를 알히며 술지강복

기를 덥게 하라 ○仲중春춘과 殘잔秋추는 맛

당히 저기 덥게 흘며 나라 ○夏하秋추는 이느

糟조와 醋조를 저기 나 덥게 하면 天천년氣기

더운디라 저컨대 맛과 슬히 傷상을 할가 하니라

○ 手수와 肋측이 相상去거 三삼四사尺

척에 불씩 물더으라 氣기 候후 후 一적기 서늘함

으로 배나라

○ 檢검 驗험 紙지 에 서 白백 布부 포 나 或혹 白백 紙지 를 가 저 酒주 介



凡驗屍에須先責血屬及隣保중識認是與不是本

屍호或屍首호經久중胖脹腐爛중識認不真은

須先責問元着甚衣服色樣중有甚記號及身上에

有甚疤認處중令分明責狀에始開檢호屍首

或在屋內地土에或床土에或屋前後露天

地上에頭南脚北頭東脚西仰合側卧중屍旁에

開寫고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門窻牆壁之類

各幾許步寸고或在山嶺溪澗草木上에打量

頻屍四至 高低遠近 去某處若干 在溪澗中

이아 上去至山脚或岸幾許 係何人地甚地名

屍傍 應有噐仗物色 仔細聲說 若屍在水中

나어 或窄暗處 難以定驗者 許移於近便處

고 開說移動緣由 라

를위驗屍시 흠애 모롬이 몬져血혈屬속과잇

隣린保보이게다짐바다本本시신일시올흐며

올리아니 흠을알오뒤或혹屍시首슈오라야

胖방脹양 이 팽 팅 흠 라 고 석어허여더알옴이진덕

디못흐거든모롬이몬져아이에므슴衣의服복

色색樣樣양 물색과 위양이라 을 넘어 시며 므슴 記記기 號號호

着탁 標표 표표 | 이 심 心과 밋 身 신 上 상 上에 므슴 허물

알을 곳 이 잇 는 고 다 더 무려 分 분 明 명 히 문 장에

다 짐 ㅎ 게 ㅎ 야 못 츠 츠 어 비로 소 열고 검 험 호 뒤 屍

시 首 슈 | 或 혹 집 속에 싸 바닥이 어나 或 후 床 상

上 상 이 어나 或 후 집 압 히 어나 뒤 히 하 느 되 는 地

다 上 상에 잇 거 나 머리 南 남이 오 발이 北 북이 며

머리 東 동이 오 발이 西 서 | 며 仰 양 ㅎ 며 合 합 ㅎ

며 側 측 ㅎ 야 仰 양은 반 드시 누 은 거 시 오 合 합 은

라 시 누 어 심을 屍 시 殮 방 屍 시 帳 당 것 터 너 시 신 노

한글대역본서적연구회

세히 기록하
관찰이라
애버려쓰고
호동
서남
북

四
至
지
어
터
서
터
라
어
터
에
處
처
所
소
와
門
문

이
며
憲
창
이
며
墻
장
이
며
壁
벽
의
類
류
를
각
각
뎌

參
보
히
며
寸
촌
이
라
호
야
쓰
고
或
혹
山
산
嶺
령
이

어
나
溪
계
澗
간
이
어
나
草
초
木
목
우
회
이
섯
거
든

屍
시
노
헛
느
뒋
四
소
至
지
와
좁
프
며
느
즈
며
멀
며

갓
가
움
과
령
과
溪
계
澗
간
이
어
나
草
초
木
목
우
회
이
섯
거
든

곳
에
서
상
계
언
마
나
흠
을
打
타
量
량
호
고
溪
계
澗

간
가
온
대
이
섯
거
든
옷
편
으
로
가
되
기
슬
이
어
나

或
혹
언
덕
에
다
드
룸
이
언
마
나
호
며
엇
던
사
람
의

러히미이여시며므슴地디名명이며屍시旁

屍시首슈 에응당잇느罷키仗當物을色色을仔

不細세히소리호야닐으고만일屍시 | 水슈中

등에나或호좁고어두운곳에이셔배定당驗驗

키어렵거든갓갑고便편호곳에옴기게호고옴

더옴즉인緣연由유를闊카說설호라

從頭檢起시호 約年多少고호 量得身長大小와 面體肉

色이如何와 脂肉이陷與不陷과 兩手脚이伸直或

拳曲과 髻髮이緊慢或散解호 闊髻야호 量髮長多少

고호 擘開兩眼중호 看雙睛고호 如有傷處디 指定某處

有傷幾處或皮破血出或皮微損血不出或

或青赤色或腫或浮皮破或骨損

與不損或量得長濶深淺圍圓青赤紫黑黯腫高分

寸或係手足或他物或磕擦隱墊或定

執致命之因或生前或有缺折肢體及偃僕拳

跛禿頭青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或雕青灸癩

疥癬癰疔瘡或閱寫新舊或有無膿血或更有頂

心頭髮內或有火燒釘子或眼睛睛孔前後陰或有

釘無釘或齒舌耳鼻內或手足指甲中或有簪無

簪或

머리로부터檢骨_한야 시작_한시나히언마나흠
을혜아리고키크여적음과面_면體_체에肉_육色_색
신이엇더흠과脂_지肉_육肉_근과肉_육
육이라이거져시며다
못거디디아니흠과두손과발이퍼이여고닷거
나或_혹숨쉬며굽음과손_은은숨쉬고다리와상도
와머리터럭이도돈_한며죽엇거나或_혹흐터디
며푸러짐을혜아리며샹토를푸러터럭기리언
마되음을자히고두눈을혀혀여러두눈망울을
보고만일傷_상處_처치잇거든아모곳에傷_상處_처흠
이엇곳이이시던갓티사여디고피났거나或_혹

갖티 微(微) 히 상(上) 하(下) 야(野) 피(皮) 아(阿) 나(那) 닛(訖) 거(可) 나(可) 或(或) 후(後) 프르(弗) 르(爾) 며
 불(不) 은(은) 빛(必) 치(止) 어(어) 나(可) 或(或) 후(後) 부(不) 엿(也) 거(可) 나(可) 或(或) 후(後) 들(得) 든(得) 갖(可) 치(止) 사(沙)
 여(也) 닛(訖) 거(可) 나(可) 或(或) 후(後) 뼈(骨) 상(上) 하(下) 앳(也) 거(可) 나(可) 다(多) 못(不) 상(上) 티(也) 아(阿) 닛(訖) 다(多)
 무(無) 르(爾) 처(止) 定(定) 명(明) 하(下) 고(可) 기(可) 리(利) 와(可) 더(也) 비(比) 와(可) 김(可) 흠(可) 엿(也) 틸(也) 과(可) 에(也)
 음(音) 과(可) 프(弗) 르(爾) 며(也) 불(不) 으(으) 며(也) 김(可) 불(不) 으(으) 며(也) 김(可) 으(으) 며(也) 김(可) 히(可) 김(可) 으(으)
 며(也) 부(不) 은(은) 거(可) 식(食) 분(分)寸(寸) 손(手) 을(을) 자(自) 히(可) 되(也) 或(或) 후(後) 수(手) 숙(宿) 무(無) 주(周)
 이(也) 어(어) 나(可) 或(或) 후(後) 他(他) 라(來) 物(物) 들(得) 이(也) 어(어) 나(可) 或(或) 후(後) 磕(磕) 합(合) 擦(擦) 찰(찰) 으(으) 몸
 로(로) 다(多) 띵(挺) 터(터) 로(로) 다(多) 띵(挺) 터(터) 生(生) 흠(可) 이(也) 라(來) 나(可) 隱(隱) 은(은) 整(整) 으(으) 아(아) 래(來) 잇(也) 는(는) 거(可) 시(時) 우(無) 호(好)
 생(生) 흠(可) 이(也) 라(來) 나(可) 隱(隱) 은(은) 整(整) 으(으) 로(로) 다(多) 띵(挺) 터(터) 生(生) 흠(可) 이(也) 라(來) 나(可) 隱(隱) 은(은) 整(整) 으(으)
 티(也) 미(未) 이(也) 엿(也) 다(多) 하(下) 야(野) 致(致) 티(也) 命(命) 명(明) 호(好) 근(近) 인(人) 을(을) 定(定) 명(明) 하(下) 야(野)
 잡(捉) 으(으) 라(來) ○ ○ 生(生) 생(生) 前(前) 卷(卷) 에(也) 肢(肢) 지(肢) 體(體) 테(也) 이(也) 즈(也) 러(也) 더(也) 시(時)

며 부러짐이 잇거나 잇굽사 등이어나 조막손이
 어나 젖독발이어나 머리의 잇거나 프르며 검붉
 으며 검으며 붉은 빛 찻샤마피와 슬후이어나여
 러가지 병형상과 雕도靑청 솔희사기교프른이
물드린거시라 이
 며 씬질허물이어나 음이며 버짐이며 큰 종괴며
 보돌 옷시며 창질을 새거시며 오란거시며 고름
 피이시며 업숨을 버려쓰라 ○ 다시 頂명心심과
 머리터럭속에 불티운 쇠못시이 심과 불에 달화
약아 벗속
기너흐든피나디아너코또흐
흔손도되더아너호너라 눈망울이며 빛굽
 이며 前 後 후陰 음 혈이라 에 釘 명이이시며 釘

이업스며니와혀와귀와코속과或후손톱발
톱가온더煞셔침며시사라근이이시며煞셔침이업슴을
보라

檢婦人에不可避羞라니○檢婦人에無傷損處에
須看陰門라恐自此入刀於腹內니 离皮淺則臍
上下에微有血沁고深則無니○圖婦人이因產
門受傷身死야皮肉消化者는其頤門骨并架骨이
俱紫赤色라니○驗處女屍에令收生婆로剪去中
指甲고用綿包紫고眼同屍親과并隣婦二三人야
令產婆로將綿紫指頭야於陰戶內에試야有黯血

면이 卽是處女_오 無_면 卽非_라 ○ 檢小兒_도 亦如檢

式_라 의 니

婦부人인을檢검함애可가히슈티를피티못홀

떠니라 ○婦부人인을檢검함애傷상損손호곳

이업거든모름이陰음門문을보라저컨대이리

로부터칼흘腹복內내예드려보내여실가함이

나갓히셔상계엇트면빛곱上상下하에微미히

피딘거시잇고집프면업스니라 이말뜻파기주스

것호로비초여라 ○ 婦부人인 이産産門문

에受受傷상함을因인호야身身殞殞호야갓과

솔히消소化화

석어업
숨이라

호者자는그

顚신門문

라 영이骨골과다

못架가骨골

하복아래
뒤희응문이
잇뼈와

다 서러니인

이다 감북으며북은 빗치니라 ○處처

女녀의屍시를驗험함

흡애收수生생婆파

라 집이로 하여금

양가
락손

을버혀

버리고 소음으로 뼈싸 감고屍시親친과다 못이

우겨 집 두세 사름을 眼안同동호야 産산婆파로

하여 몸소 음감은 손가락 삿찰가져 陰음戶호內내

녀 예 시험 호야 감은 피이 시험 못이 는 處처女녀

오 업스면 못아니라 ○ 小소兒어 處처 處처 處처 處처 處처

喜도 任意檢日式 대 로 喜인 니 라 喜 ○ 檢 任 意

並抄劄屍形四至訖 方可扛擡出平穩明淨地

上上用門扇簾席襯碑不惹泥土 ○ 先剝在身

衣服上自頭上至鞋襪等逐一抄劄有隨身行

李亦具名件 ○ 且乾驗一番 ○ 次以湯水

肥皂洗滌垢膩 又以水衝蕩洗淨 ○ 次用

白紙厚鋪襯 ○ 檢沿屍脫下衣物已責付里

正主首收管聽候覆檢有照用衣物幾件

開無照用衣物開 ○ 方可押兩爭人及

親屬干連人見認了各令書押格目驗狀

屍자의형상과四소至자를아오로벗겨거룩호

야只吞애보야호로可가히머여드러平穩은

호고복고조흔地다上상에내고門은扇선이라

이나샷자리나뎛티나뎛슬부터셔라퍼신아래

라 존흙과흙을뭇티디아니케호라○몬져몸에

잇는衣의服복을벗기고頭두上상으로부터신

과보션들셔디너른히낫낫티셔라가며벗겨귀

룩호디몸에셔로인行행李李의의잇거

든셔호일흙과가디수를又초기룩호라○야타

乾止驗법법物물을호번호라○버거湯

탕水슈와肥비皂조

皂조 焚 형이라

로써셔와기름을베

서가식고또물노베시려베서가식라○버거白

帛紙지를써두러이퍼슬부리게하라○沿연屍

시^{시신상하로말}의^{안단말}이라호야檢검홀시衣의物물을벗

겨다홀애모라正정파호슈首슈의게다집밧고

맛더거두어츠지호야覆복檢검을기드리게호

디빙조호야쓰일디잇노衣의物물이어든땀가

딘줄을버리고^{버려라}빙조호야쓰일디업

스衣의物물이라도버리라○보야호로可가히

兩兩爭쟁人인^{원고라}파밧親친屬속과쿠고

自參參... 卷... 一

連連호사름드를압령호야보아알되매각각格

目목驗현狀狀 고함문장에격에일홈두이라

就驗處야以薦席로襯碑屍首 고호週圍에用灰印記

고호 狀 고 附案 고 驗現處 고 처에나아가薦席席석으로베屍尸首슈

를於며설고에엇쳐灰 회를써印인터보람호고

고 屍尸 고 四四面 고 면 고 면 고 에 고 지 고 를 고 켜 고 고 고 印인 고 跡 고 跡 고 을 고 만 고 하

고 마 고 터 고 고 고 印인 고 된 고 뒤 고 아 고 다 고 소 고 라 고 그 고 곳 고 舍 고 舍 고 印인 고 허 고 卞 고 奸 고 간

고 爲 고 爲 고 卞 고 卞 고 正 고 正 고 隣 고 隣 고 人 고 人 고 의 고 看 고 守 고 守 고 守 고 호 고 스

문장을다짐바다문안에부타라

문장을다짐바다문안에부타라

四縫屍首之並係要害虛怯致命處是尤宜仔細

親檢頂心偏左偏右頤門頭顱額角兩太陽穴兩

耳竅咽喉胸膛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

凡傷下部之人其痕皆現於上男子之傷

是現於上下牙根裏骨非傷左則居右傷右則居

左傷正則居中女子之傷亦然

又現於上脛中一說腎囊傷破時頤門血紅

牙齒脫落小腹受傷同頤類食氣

兩腋臍兩肋腦後兩

耳根脊背臀兩後肋兩後脇腰眼若一處

有痕損並令作指定喝起他歌處

頂心顙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

此八速歿之處

腦後頭顱胸膛脊背脇肋

此

必死之處。肉青黑皮破。因綻骨裂。腦出血流。此

致命之傷。致命之傷。當速死之處。不得過

三日。當必死之處。不得過十日。○凡打着

分寸。稍大。毒氣蓄積向裏。可約得一兩日

後身死。若分寸深重。毒氣紫黑。即時向裏

可以當下身死。○凡命門骨。最屬虛怯

以手擊之。即可立斃。因命門骨左右兩穴

有紅筋。若細絲。通於兩內腎。拍斷。即死

外無痕跡。若有告稱。拍着命門處身死。

只檢驗命門骨。紫赤者。即是。

四小縫骨 右胸合 左面 屍之首俞의다

要로害해 右은 곳이라 虛히怯 겁 右은 곳이라 ㅎ

야致티命명ㅎ기에미인곳을더옥맛당히仔조

細세히흐더니頂頂心심과偏편左左와偏편右

우와顛顛心門은과頭두顛로와額額角角과兩兩

太太陽陽穴혈과兩兩傍耳이竅竅와咽咽인喉후와

胸胸膺膺과兩兩傍乳유와心심坎坎과肚肚腹복

과兩兩脇脇과臍臍肚肚와玉玉莖莖과腎腎囊

남부 婦婦人인은陰음戶호 傷傷상호사름아그흔덕이다 ○을잇下下부部

드러나 子子의상처는上상下下하아금너불휘속속 傷傷상호면우편편

頂당심심과顛신門은과耳根과咽인喉후
와心심坎남과腰은眼안과小소腹부과腎신囊
낭은이설니죽는곳이오腦노後후와頭두顛로
와胸흉臆당과脊척背백와脇협肋류은이반드
시죽는곳이오슬히프르고검으며갓치사여디
며슬히러디며빠씩여디며노장이나오며피흐
른거슨이致티命명호는상체너致티命명호는상
체설니죽을곳을當당호야시면三삼日일을디
내디못호고반드시죽는곳을當당호야시면十
십日일을디내디못호스니라○를읽터심애分

분寸촌이 펴크고 毒毒氣가 빠혀 毒毒氣가 時시

라 안흐로 向_向흐면 可가히 해아리긴대 凶_凶두날

後 후에 나 죽을꺼시오 만일 分寸촌이 深심重

들흐고 毒毒氣가 紫_紫黑_黑흐야 卽즉 時시 안흐

로 向_向흐면 可가히 可가히 죽을뻘니라 ○ ○ 들췌

命_命門_門은 骨_骨골이 마장 虛_虛허怯_怯함 凶_凶되 屬_屬속흐야

손으로 버티면 可가히 죽시 죽느니 命_命門_門은

骨_骨골 左_左右_右兩_兩旁_旁穴_穴 命_命門_門은 骨_骨골은 尾_尾미

리 허어 날 骨_骨골 五_五오 分_分분 에 小_小소 火_火화 氣_氣기 이 시니 열

肅_肅은 腎_腎신 에 火_火화 은 氣_氣기 小_小소 火_火화 氣_氣기 이 시니 열

두内니腎신에通통홍을因인호얀느니라두드

려뒹쳐디면

命명門門骨骨을을려紅홍

죽으

디뵈게느痕흔跡적이업느니라일命명門門處

저를拍박着착탁호야身신死사호다告고稱칭호

리잇거든다만命명門門骨骨을檢검驗驗함호야

紫紫赤赤호者者자곳이니라

驗傷에須用手指호按其靑紅處호眞傷處호堅

硬호指一起호仍然靑紅호將水滴上호水珠不散

開호如係發變處호將指一點起호即時白色호將

水滴上호水不停住호니發變處是人腹內之血不能

聚結故若生前受打氣絕則血聚成傷
蓋人之血行氣既盡而血亦盡故
硬也

○ 상쳐를驗함홀지모름이손가락으로써正正官官

의라손이그프르고붉은곳을늘으면진딧傷상處처

는곳고돈도호디손가락을호번셔하매그뒤로

靑청紅홍호고물을가져셔르티면물방울이호

터디디이니코만일發發變변에막인곳은손가

락을가져호번딛혀셔하면卽즉時시흰빛치오

물을가져셔르티면물이어무디아나호느니라

發發變변은이사름의빛속엇피가호後後후에
맛그로發發散산호야能능히모도어리려디못

호는故고로써뎐고만일生성前전에아자氣
기絶絶호디면피모히상쳐가되니며게사롬의
피기운에부러行행호는디라기운이림의막
히개피호약히이호故고로크고드호는너
라

凡檢傷以瘡暈爲主。瘡之爲形。要皆自近
而遠。由深漸淺。自濃及淡。而將盡之處。又皆
如雲霞如雨脚。如晴雲之若有若無。可望而不
可卽。鮮潤淡宕。要皆自然之氣所致。故其
色活。此爲檢傷綱領。如紅自紅。紫自紫。
呆板積於一處。瘡脚全無。則僞造也。
물잇상쳐를검함흠애瘡음기미린暈운기

라서으로 배주 줄삼을며니 癢음의형상되음이
 요지전대다맛가옴으로부터멸며갑흠으로부
 터점점엿르며濃濃말말이치이치잇단 흠으로부터淡淡말말
 빗치였단 호디밋치盡盡진호야가는곳이소다구
 름과안개도又又트며빗발도又又트며갠구름의잇
 는듯업는듯흠又又트야可可가히발라볼듯호디可
 가히나아가디못호며가변라변라잇는듯호디나아
 라^이급고潤潤윤호고淡淡담宕宕당^이난말이리야호야
 요지전대다自然自然연호괴운의닐원배라故고
 로그빗치상황호는니이느상쳐를검험호는綱

상領령이라 만일 불은 거스스스로 불을 만하고
검불은 거스스스로 검불을 만하고야 무보板판 벗
이박이히인형상이라호야호곳에답배혀피리티인발이전
혀업스면거죽지은거시니라

凡檢爭鬪致歿。雖二主。分明而屍上。並無痕

損。何以定要害致命處。此必是被傷人。舊有

宿患氣疾。或爭鬪前。飲酒致醉。至爭鬪時

有所觸犯。氣絕而歿也。如此者。多是腎子。

或一箇。或兩箇。縮上不見。須用溫醋湯

或蘸軟衣服。或綿絮之類。一飯久。

件作行人_{으로}以手揉按小腹下_면其腎子_가自下_하

卽其驗也_라然後_에仔細看要害致命處_라

물윗爭_정鬪_투하야致_치타_가死_사호거슬_가검_검험_험함_함애

비록_二어_一主_주슈_두편_편에_에드_드로_로一分_분明明_{명명}하_하나_나屍

시_시上_상양_양애_애痕_흔흔_흔損_損손_손이_이아_아오_오로_로입_입스_스면_면엇_엇디_디卞_卞要

요_요害_害해_해致_치타_가命_명영_영處_처를_를定_定명_명하_하리_리오_오이_이는_는반_반드

시_시이_이被_피피_피傷_상상_상호_호사_사름_름이_이본_본디_디宿_숙속_속患_환환_환인_인氣_기가

疾_疾질_질_과은_은오_오라_라이_이잇_잇거_거나_나或_或후_후爭_정鬪_투하_하기_기前

전_전에_에슬_슬먹_먹어_어醉_취취_취로_로죽_죽엇_엇다_다가_가爭_정鬪_투하_하고_고서

에_에나_나르_르러_러觸_촉촉_촉犯_범범_범호_호배_배이_이什_什氣_기가_가絶_絶절_절하_하야_야죽

은 거시니 이 마른 자는 만히 이腎신子지 불알이라
一或 후호 낮치나 或 후두 낮치 주리 혀티 그 어 뵈
디 아 니 흐느니 모름 이 더 온醋조湯 양을 써 부드
러 온衣 의 服 복 이 어 나 或 후 소 음 부 티 에 적 서 호
식 경 만 덩 헛 다 가 件 오 작 작 과 行 향 人 인 으 로 호
여 음 손 으 로 배 小 少 腹 복 아 래 를 밀 문 져 늘 으 면
그 腎 신 子 지 一 절 로 느 리 느 니 곳 그 증 험 이 라 그
런 後 후 에 要 요 害 해 致 티 命 명 處 처 를 仔 지 細 세
히 보 라

凡暑月 用湯水酒醋하 罨着其屍上하 損處는 淨

皮多白고不損處는却有青黑하暑時에卷則皮

에有凝血는生氣故也若나不見의確痕나若避

臭穢하據見在檢驗過면往往誤事라稍有疑處야

浮皮破損은須令剝去라如有損傷면底下에血

瘡의分明오更有暑月九竅內에未有蛆出오却於

太陽穴髮際兩脇腹間。先有蛆出면是는彼中有

損나宜仔細看라

를 잊暑서月월에湯탕水水와酒酒并醋并醋조를 써그

屍시의우회덥흐면손상호호곳은들든들갓치만히

희고손상타아는곳은든득프르고검은미이셔

몸을 쉬어 때 시에 덥흐려 갖치 조우르고 들며 희며

다 너더 거傷상處처에 피어 희며 이 생생氣氣

호연피라 만일傷상피아 보 되노變的의確학호

변동동호야 프르고 짐어 더는 너라變的의確학호

흔적을 보디 못호는 너 만일臭穢穢에 들避피호

야 회노 것 만빙거호야 회는 것 손손피디야 너코

라檢試驗혈호야 디 너 면往往往장일을 그릇

될 디라 저기의 심된곳이 이셔 들든 갖치破과損

손호얏거든 모름이 호여 곰 벗겨 버리라 詳부皮

이러 말 만일損손傷傷이 의시면 밋바닥애 밋간

라血혈癢음이 分분明명흐려시오 佐暑셔 月월

에 九九竅호안하 耳이 目목 口口 鼻鼻 道道 水水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蛆

이라 나미 잇디 아나 코문득 태에 陽穴 疔과 髮
 際와 兩脇과 腹間에 몬져 蛆져 나
 미이 시면 이 노더 가온대 손상 호저시 이 심이나
 맛당히仔細히 볼떠니라

○ 人身有舊痕者多如幼時跌撲平日爭

毆及杖痕瘡癥雖久平復其痕不滅色跡

淺黑至死猶著蓋其血既凝終身不

能如故但周匝無餘暈按之虛平視之色黯

其骨肉皆與新毆傷痕有辨○凡死人

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腎上兩腿後兩脚腕兩

脚肚子上下 의 有微赤色 의 驗是本人身歿後 에 一
向仰卧停泊 야 血脉 이 墜下 야 致有此微赤色 오 卽
不是别致他故身歿 한 也

④ 사람의 몸에 넷허물이 있느니만흐니어린제
업더더부더이즌디와평평日일에빠화티며밋
당쳐흔적과창쳐허물뜻튼거슨비록平復復복
흐연디오라나그흔적이업서디디아니호디빛
과자최엿트며검어죽기예너른히오히려나타
나느니대개그피이미어려며더終終身신신로록
能능히네스디못호디다만에엇도래에나문물

은 이 업고 눌으매 虛히 平평 도도티아니코도다

흐고 봄애 빛치어 두어 그 백와 슬히다 새로 터셔

傷상 호흔적과 분변이 잇는 니라 ○ 들릿 疾人

인 의 項항 後후와 背背上상과 兩兩 肋肋 後후와

腰腰 眼안 內內와 兩兩 臂臂 上상과 兩兩 腿腿 身身 後後

후와 兩兩 臑臑 臑臑 兩兩 脚脚 及及 肚肚 子子 及及 上上 上上

下하에 微微 赤赤은 빛치이시면 驗驗 驗驗애 이느

本本 人人 인이 죽은 後후에 호르 마치 반드시누어

停停 泊泊 하노히여다 血血 脈脈 익이 처더느려

이런 微微 赤赤 色色 이 잇기여 日日 위미 오곳이 別

별노다르연고로身신 灰스에닐위미아니라

凡行凶噐仗이拳手磚石杵棒이或金刃竹簽之

類를見在者는比對傷處에定驗有無相同고聞說

名件은量得大小長短丈尺分寸고封記發去라以

圖本如上司司噐仗仗封而着標以○凡行凶噐

仗을索之少緩則奸囚之家藏匿移易라糖成疑

獄을可以免하나리干繫甚重이先當急急收索이

라殺人凶刀은日久難辨이須用炭燒紅時以高醋洗之라血跡自見라

言잇行형凶噐호噐斗仗당이拳手수이磚

石석仗仗이杵棒이公棒방이어나或

후金금刃인이며竹등簞첩의類류를見한在자

호거슨傷상處처에다허마초아서르又르미이

시며업슴을定定驗험하고名명件件이 무슴기당

이러말을버려닐으고大대小소長長短短丈丈

尺尺分분寸寸손을자히고封封호고보람호야發

발去거호라이 제는그런本本으로배上상司司

보람호야배두엇다가만일上상司司

에서起기送송호라호면보배느니라○를잇行

행凶흉호器기仗仗을춧기를적기緩緩히호면

奸간囚囚간사호 죄쉬라의집이금초며밧고아疑의獄

을사며문드라可可히배죽기를免免호리니

干_二繫_一甚_二심_一히_三重_二동_一호_三디_四라_五몬_二져_一맛_二당_一히_三急_二급_一

急_二급_一히_三거_二두_一며_三차_二즐_一며_三니_四라_五加_二殺_一살_二人_一인_二호_一內_二喜_一

고_二分_一변_二키_一어_二럼_一기_二든_一모_二름_一의_二수_一분_二노_一배_二달_一와_二북_一게_二하_一

洗 如法用糟醋야擁고 罨屍首고 仍以고 灰人衣服

로 盡蓋고 用煮醋酒澆淋고 又以薦席로 罨一時又

가 候屍體透軟야 卽去고 罨物고 以水衝去糟醋고

方驗더 母得信行人說야 只將酒醋潑過라 痕損이

不出라 이 則如法洗罨後에 猶未分 明 ○人身이 本

赤黑色면 灰後變動야 作青靛色나 其痕未見有

可疑處은 先將水灑濕고 後將蔥白야 拍碎塗痕

處고以醋로蘸紙蓋上가候一時久除去고以水

洗고其痕이卽見라○若傷損痕跡이未甚分明

再用醋槽가捲가良久가去糟고以水衝洗

於露天處에以新油絹이或明油雨傘로覆蓋

欲見處고迎日隔傘看면痕이卽現나若陰雨이

以熟炭로隔照라○或更隱難見은以白梅搗

爛야攤在欲見之處고再攤다猶未快見은

再以白梅取肉야加蔥椒鹽槽야一處研拍作餅子

火上煨令熟야烙損處에先用紙襯之면卽見나

○冬雪寒凜하屍首一僵凍면糟醋로雖極熱고

衣被重疊擁卷亦不得屍體透軟當燒
坑置屍於內仍用衣被覆蓋再用熱醋淋遍
坑兩邊相去二三尺復以火烘約透去火
移屍出驗昔有二人聞政俄頃一人
仆地氣絕見證分明及驗屍無痕檢
官甚撓時方寒忽思得計遂令掘一坑
深二尺餘依屍長短以柴燒熱得所以醋
沃之置屍坑內以衣物覆之良久覺屍溫
出屍以酒醋澄紙貼附痕傷遂出
및기그법法이라如法皆糟조와醋조

를 써屍사首슈를 싸며 답고仍잉하야 死스人인

의衣의服복으로 배다 답고 달힌 초와 술노 배시

언저 적시고 佐薦천席석으로 배호時시人동안

을 답혔다가 屍사體례스 못게 부드럽기 를기드

려 申申과 초귀운이 스 못차 저스 곳 답혔던 거슬앗

고 물노 배糟조醋조를 써서 업시 호고 손으로 써 스면 갖치

버서 잃가 하야 보야 호로 검험 호되 行한人인 의

말을 미더 酒주醋조를 가 저시 킬만 하디 말라 洗世

卷 痏을 여 법히 痕흔損손이나 다 아너 하느니라

如어 法법히 벗기 고 답흔 後후에 오히려 분

明명티 못호면 이 아래 여러 法법을 차례로 글며

라니 ○人인 身신 이 본디 赤적 黑흑 色色 식 이면 死사

後후에 變變動 동 하야 靑청 脈脈 이 고른 빛 치 오 운

이로 色色 식 이 되느니 그 혼적 이 可 가히 의 심 저

온 곳이 이 심을 보디 못하거든 몬져 물을 가져서

려 적 시고 後후에 蔥葱 白白 학을 가져 두드려 사여

痕痕 處處 이 요해로 온 덕 응 당 혼 적 에 브르고 초로

배 쥬히를 적셔 우희 덧 헛다가 호時 시 人人 동 안을

기 드려 아사 브리고 물로 베스면 그 痕痕 이 곳 봐

느니라 ○만 일 傷傷 상 損손 호 痕痕 跡跡 이 채 분 분

明명 터 아 니 거 든 다 시 醋醋 조 糟糟 조 를 써 攤攤 으 罨罨

흐얏다가 마장오라 매糟 조를 업시 코물노 써서
터 벗고 하늘 보느던 서서로 가름틸 흐비단이나
或 후복게 더론 雨 우傘 산으로 배보고 저 흐느듯
에 마리우고 햇빛막 조우산을 隔 隔 흐고 보면 혼
적 이 곳 보느니 만 일陰 음 雨 우 흐 거 든 솟 불 노 배
隔 隔 흐 야 비 쇠라 ○ 或 후 다시 은 회 흐 야 보 기 어
렵 거 든 白 백 梅 梅 로 배 서 허 좃 닥 여 보고 저 흐느
곳 에 퍼고 다시 擁 음 罨 음 흐 야 보 디 오 히 려 快 快
히 보 다 아 니 커 든 다시 白 백 梅 梅 로 배 肉 육 을 取
취 흐 야 蔥 총 과 椒 초 와 鹽 염 과 糟 조 를 너 허 흐 디

큰아쉬드러벽을린드라불우희구어덥게하야

상손호곳에늘너더이디몬져조히로베부디티

면상처우희몬져조히로베부디티○
우희미유을부터란말이라○

冬동雪설寒한凜를호제屍시首슈一儻강凍凍

벗터어러심이라 하야시면糟조醋조를비록極극히덥

게호고衣의被의를호등疊疊히擁옹罨엄하야

도또호屍시體의스못부드럽디못하느니맛당

히곳에불딜너屍시를안히곳안노고仍仍하야

衣의被의로베덥고다시더운초로베적셔두루

가게호고곳兩兩邊邊相상去去二이三삼尺척

에다시불노배씩야스못출만호야든불을최우
고屍사톨옴겨내여검험하라○네두사름이빠
화리다가겨근덧애호사름이싸히업더져氣의
絶절하고본증인이分明明호디밋屍사를驗
하흠애상흔이업느니라檢검官관이甚심히요
란호더너싸보야호로치운디라홀연이계교를
싱각호야드되여호곳을꼭이되김희는二이尺
취남죽고시례기리대로하고장작으로배불틸
너더여알맞게하고초로배적시고屍사를곳안
히드러노코衣의物을로배덥혔다가장오라

매시례 더위된 줄이 알려든屍 시를 내야酒 주醋
로버 조히에 썩려부터니痕 흔傷 상이 드디여
나니라

四時變動 春三月 은 屍 이 經兩三日 면 變動 야 口鼻

肚皮兩脇胸前肉色 이 微青 고 若經十日以來則鼻

耳內 에 多有惡汁流出 고 肚皮胖脹 고 此 는 卽肥

大之人 이 若是久患 로 形體瘦弱之人則經半月以

後 라 方有如此變動 이 〇夏三月 은 屍 이 經一

二日 면 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 야 肉色 이 變動 고

經三日則口鼻內 에 多有汁流蟲蛆 고 遍身 이 胖脹

口唇。黧_レ皮膚。脫爛_レ。蛇_レ胎_レ。起_レ。經四五
 日則頭髮_レ。脫落_レ。○秋三月_ニ屍_レ。經兩三日
 亦先從面上肚皮兩脇胸前_ニ肉色_レ。變動_レ。四
 五日則鼻口內_ニ多汁流_レ。蟲蛆_レ。出_レ。遍身_レ。胖
 脹_レ。口唇_レ。黧_レ。蛇_レ。胎_レ。起_レ。經六七日_ニ髮始脫
 落_レ。○冬三月_ニ屍_レ。經四五日_ニ身體肉色_レ。
 黃緊微變_レ。經半月以後則先從面上口鼻兩脇胸
 前_ニ變動_レ。若安至濕地_ニ用薦席裹_レ。其屍_レ。猝
 難變動_レ。更審月頭月尾_ニ按春秋節氣_レ。定之_レ。
 ○盛熱_ニ屍首_レ。經一日_ニ即皮肉_レ。變動_レ。作青

黧色고已有氣息고經三四日년皮肉이漸壞고屍

脹고蛆出고口鼻이流惡汁고頭髮이漸落라○

盛寒은五日이如盛熱一日時오半月이如夏熱三

五日時라○春秋는氣候이平和야二三日이可比

夏一日오八九日이可比夏三四日이然나人有肥

瘦나肥少者는易壞고瘦老者는難壞나又南北은

氣候이不同고山中은寒暄이陡頓不常나更在臨

時通變審察라

四小時이變世動동흥이라春춘三삼月월은屍

시이兩半三삼日일이디나면變世動동흥야口

구鼻비와肚두피피와兩旁脇협과胸膈前전손

빛치려기프르고만일十日일이다나배오면

鼻비耳이안히만히惡악汁즙이이셔흘너나고

肚두피피胖방脹^탕호^{터부탕}느니이느곳肥

비大대호사름이오만일이오란병에形형體體

瘦수弱약호사름이면半半月월디난以이後후

에사보야호로이又티變變動동흙이잇느니라

○夏하三삼月월은屍시——일二이日일이디

나면몬져面면上상과肚두피피와兩旁脇협과

胸膈前전으로조차슬빛치變變動동호고三삼

日일이디나면口口鼻비안히만히汁즙이흐르

며蟲蟲蛆져아귀뒤잇고遍遍身신이臍臍脹脹

흐고口口唇唇이뒤티이고갓과슬하버섯허여

디고施施갓치진갓치이닐고四사五오日

일이디나면머리터럭이버섯허려디느니라○

秋秋三삼月월은屍尸一兩兩三삼日일이디나

면또호문져面面上상과肚肚皮피와兩兩脇脇

과胸胸前前으로조차슬빛치變變動동흐고四

五五日일이면鼻비口口안히만히汁즙이흐

르고蟲蟲蛆져나고안키소녀를遍遍身신이

胖_방脹_량亨_고口_구唇_순아_뒤티_아고_施로_診진
 이_닐고_六六_七七_칠日_일이_디나_면며_러러_러럭_아비
 로_소脫_탈落_락하_느너_라○冬_동三_삼月_월일_은屍
 시_시四_사五_오日_일이_디나_면身_신體_체슬_빛치
 누_르며_緊고_하야_풀아_되이_라져_기變_변하_고半_반
 月_월을_디난_이後_후면_몬져_面면_上상_과口_구
 鼻_비와_兩兩_방脇_협과_胸胸_흉前_전으로_조차_變變動_동
 동_호되_만일_濕습_地地_디에_노히_여잇_거나_薦薦_천席_동
 석_으로_빠무_더시_면그_屍屍_시졸_연히_變變動_동키
 어_려우_니

 습_디는_차고_무더_시면_동일_을고_쳐
 하_고로_변동_키아_려움_이라_고쳐

白僵乾瘁屍

先鋪炭火

互

約與屍長闊

互

上鋪薄布

互

可與炭等

互

以水

互

噴微濕

互

卧屍於上

互

仍以

布

互

覆蓋頭面肢體訖

互

再用炭火鋪擁令遍

以布覆之

互

復用水遍灑一時久

必軟起

互

方可以熱醋

互

洗之

互

於驗傷處

葱椒

互

同白梅

互

和糟研爛

互

捻作餅子

互

火內煨

令極熱

互

先於屍身上

互

用紙搭着了

互

次以糟餅

互

其痕損

互

必見

互

○

互

僵屍皮肉傷痕

隱伏者

互

用糟五斤

互

入麻黃末甘草末各三兩

互

煮成粥候溫

中

互

徧塗屍身

互

掘地作坑

互

若如冬月

蒸罈法야燒熱고多發酒醋고昇屍置坑內고絮薦

로密蓋고別以淨水一鍋로入燒酒二斤야煮白布

二方야俟屍軟야擡至平明處야細細拭淨고其傷

이即見라니

白帛僵고乾고瘁해호시신이라은회계고

이뺏호형상이오는원고痺해호시신이라은회계고

라이몬져炭란火화를펴디시려와기르도며너비

될만티호고우희열온뵈를펴디可가히炭란과

상등케호고물노배섞어저기젓게호고屍시를

우희누이고仍영호야뵈로배頭두面면과肢다

體례를답허다 흠애다시炭火로션혁들너
두루가게하고다시뵈로베답고다시물노베두
루썩려호時사스동안이면그屍시—몸과솔히
반드시부드러위너너니보야호로可가히더운
초로베벳기고상쳐驗함흠곳에과와천초로베
白의梅의를호가지로호야糟조를섯거마라무
르녹게호야쥐집어떡을만드라불속에구어極
극히답게호고몬져屍시身신우희쇼히로베언
저부되티고버거糟조餅병으로베답호면그痕
흔損손아반드시되너나라○
僵_○屍_○시卜皮

피肉유에傷상痕흔아숨어보디아닛는者자느

糟조五오斤근을써麻마黃黃末말과甘甘草초

末말各各三삼兩兩을녀허달혀粥죽을민드라

드스흐기롤기드려_너케_모덥_디아_라屍시身신에두

루브르고싸홀과굿인돌기롤冬동月월에蒸증

罨암흐느法법과又티흐야불틸너덥게흐고酒

醋조를만히뿌리고시신을드러굿안히노코

소음과돛츠로빅빅이덥고싸로밍물一일鍋과

로버燒소酒주二이斤근을녀허白帛布포두조

각을달혀시신이부드럽기롤기드려드러平평

고고 부러은곳에 나르러細細히 배서 가시면

그상체즉시되느니라

壞爛屍 若避臭穢야不親臨면往往誤事라 ○量

割四至訖에用水衝去蛆蟲穢汚야皮膚肉。既淨에

은方可驗오不必用醋糟라 ○頻令汲新水야澆

潑屍首四面라 ○跛傷處 不至骨損則肉。緊貼

在骨上야用水衝激不去고指甲感之라方脫호肉

貼處에有損卽見라 ○被打或刃傷處 皮膚에

作赤色深重고久而作青黑色야貼骨不壞고蟲不

能食라

壞其爛其호시신이라 상호야석 만일 臭穢穢에

를 避피호야 親친히 臨림티아니호면 往왕 往왕

일을 그릇티느니라 ○ 四소 至지를 자혀 귀 록호

야 只呑애 물 노써 세터 蛆자 蟲蟲과 穢에 汚오를

업시 호야 갖과 슬히 이의 조하디 거든 보야 호로

可가 히 驗험 호호 거시오 醋트야 醋조 糟조를 쓰디

아니 호터 니라 ○ 조새 물을 길리여 屍시 首슈

四소 面면 에 세혀 언즈라 ○ 毆子傷상 處처 | 瞞

손상 흠 앵 너르디 아니호면 슬히 든든히 부러 瞞

우회 이셔 손상티아니호 슬은 피란 할고 손상호

인슬은 곳고 든든호야 뼈에 부러트느니

라 물노싸衝충激격부호야도갓디아나호고물노싸

터도아슬히비어나탄말이라손톱으로感감츄추러손톱으로여하안말

이호야상보야호로버서디타슬부터던디손상

호거시야셔죽지보느니라○被피타打타호거나

或혹호刃연안傷상호긔은皮피과肉육이붉은빛치되

디깊고重중호고오라매靑청黑흑호色색이되야

비어부터터문히디디아나고버려도能능호하력

디못호느니라

檢骨濃농磨마好호墨묵塗투骨골上상候후乾건卽즉洗세去거墨묵如라如

有損處則墨必浸入고無損處則墨不浸入라○

用新綿于骨上拂拭遇損處必牽惹綿起

再看折處其骨芒刺向裏是毆打折者

骨折處滯淤血○骨上被打處即有

紅色路微癢骨斷處其接續兩頭各有血暈

色再以有痕骨目中照看如紅活乃是

生前被毆分明骨上若無血癢縱有損折

乃死後痕乃

뼈를 남힘 흡이라 도흔먹을 닷기 마라 뼈우회

바르고 르르기를 그려즉시먹을 빼스라 만일

상흔곳이 이시면먹이 반드시저저들고 상흔곳

이업스면력이저저드디아니흐느니라○면새
소음으로써우희다려쓰스라샹훈곳을만나
면반드시소음을무려드리야너러내느니라다시
부러딘디를보라그뻬엇가식뻬부러딘곳에반
드시가의앗느니라
라안흐로옥어시면맛게서헛느고로
안흐로샹훈이라는敲우
打々흐야부러딘거시너뻬부러딘곳에淤어血
혈이머무러섯느니라○면뻬우희被피打々호디
는곳붉은줄微기히피미린거시잇고뻬뉘허던
디는그막초아셔나이는두뉘치각각血혈暈운
돈빗치잇느니라다시흔적잇는뻬로뻬히빛가온

대비최여보아만일불고싱싱흐면이생生前
전에被피毆구힘이分은明명흐고뼈우희만일血
혈癢음의업스면비록상호야부러디미이시나
이에死스後후흔적이나라

開棺檢驗

凡發塚開棺檢驗의誠未應의人命의至

重의合驗屍傷의却緣埋有月日遠近의時有寒

暑不同의况人情의萬狀의所犯의各別의似難一

槩定論의今後의凡有人命의雖已安埋의亦合

開檢의庶望事有證驗의情無疑似의○開棺檢

得의皮肉의消化의骨殖의顯露의難以檢驗의自

棺 판을 열고 檢 驗 驗 驗 이라 물잇무덤을 열고
棺 판을 여러 檢 驗 驗 驗 이진실로응당티 못하
나 人 命 명 이 至 지 重 등 하니 합당히 屍 시 傷 상
을 驗 驗 할 거시 勿 도로혀 무더심 이 月 월 日 일
의 遠 원 近 근 도이시며 寒 한 暑 서 一 一 디 못하
이 잇기로 인연 하고 하물며 人 人 情 정 이 만가지
형 상 이 나 하고 犯 범 호 배 가 각 다 르니 一 一 일 槩 개
로 定 定 하야 의론 키 어려 올 듯 호 디라 이 後 後 후
노 물 잇 人 人 命 명 이 잇 거 든 비록 이 미 무 더 시 나

또 호합당의 여러 검함을 더니 거의 일이 이證證驗

함이 잇고 옥경이疑의似스니 업슴을 보라리니

라 ○棺 판을 여러檢得 득 흠애皮의肉육이 누

고骨骨殖세어림거기름이 드러나 배檢在驗함

하기 어렵고 본디 또 호檢骨骨을 호는定명例러

업스니 무어슬의빙호야致키命명호根근因인

을定명호야잡으리오만日照少勘죽인정척을아만말감

라이明明白白호기든行행凶흉人인과干干連

린人인을가져致키命명호根근因인을研研

사공구호고磨야트시연과벗돌질호드시세로

무

屋宇內내 하집안에이셔殯빈하얏거든 여러사람

을對대티하야 흙을열고屍시를무어스로서담고

사라시며棺관판잇漆칠과뒗게션이이시며업슴

을驗험함得득하라○도적이사름의무덤을發발

하얏거든무덤이므슴向향이며에음과기릭와

너비언마나흙을驗험하고싸홀여러널이보엿

거나或혹棺관판을여러죽음이보엿거든처엄님

엇던衣의服복物물色색식므슴기치라이賊적의

가,도적마존與어썸부를驗험하라身신이완전

하면아나를
檢검하라

無憑檢驗屍檢時宜說頭髮。褪落頭面遍

身皮肉。並皆青黑。紋皮壞爛及被蛆蟲啣破骨

殖顯露去處。○如皮肉消化。宜說骸骨。

顯露上下皮肉。並皆消化。只有些少未消化

筋肉。與骨殖相連。今來委是無憑檢驗。

同涌水檢法未段兼用手揣捏上下。並無骨損去處。

○路次之屍。時或有之。既無親人來認。土

人。舉報。又恐惹事。往往暴露。深為不宜。

遇此等屍骸。先令地方。不許不報明。即

當捐俸銀一二兩。率領伴作。協同地方。相驗。

有無傷痕_호約略年紀_호填註面貌衣服_호如有携

帶行李財帛_호公驗貯庫_호以俟親人議認_호隨

將捐去銀兩_호買棺盛殮_호且勿半釘_호仍埋標立

記號_호

의빙호야檢日驗합호거시업슨시신이라검합

호싸애맛당히頭두髮발이버서디고頭두面면

과遍遍身신엇皮피肉육이아오로다靑靑黑黑후

호며갓치버서壞과爛爛호야시며잇蛆적蟲蟲

이무러누러져骨骨殖殖이顯현露로호곳을닐

으라○만일皮피肉육이녹앗거든맛당히닐으

되骸骨骨이顯_현露_로호고上_상下_하可_可皮_피肉_肉

유이아오로다죽야시디다만些_些少_少쇼죽디아

노힘줄과슬이骨_骨를殪_殪식으로더브러서_連련

호것만이시니이저실노이의방호야檢_檢甘_甘驗_驗함

호꺼시업고_법未_未알_알端_端과_과호_호니_니라_라法_法兼_兼검_검호

야손으로셔上_上下_下를揣_揣휘_휘捏_捏길_길만_만서_서늘_늘호

니아오로백손상호곳도업다호라○_○길_길희_희셔

죽은죽업이세로或_或흥_흥잇는_는니이의親_親친_친人_人인이

와알오리업고그싸사름이드러報_報보_보호_호꺼_꺼시_시로

뒤_뒤쇼_쇼일_일을_을니_니르_르혈_혈사_사저_저허_허往_往왕_왕往_往왕_왕히_히恭_恭루_루露_露로

흐니 김히 맛당티 아닌 디라 이러흐屍 시骸히를
만나거든 몬져 地디 方방으로 흐여 金報보 흠이
분명티 아닌 거스름히 티말고 증시 맛당히 俸봉
銀은 一일 二이 兩兩을 내야 作작 오 作작을 거느려
地디 方방과 호가 디로 흐야 傷상 痕흔 이 이시며
업슴을 슬퍼 驗험 호 디 年년 紀기 를 짐작 흐며 面
면 貌모와 衣의 服복 을 메워 기록 흐고 만일 가 져
는 行형 李시 財지 帛帛 이 잇거든 公公 번히 증인을
되흐야
라 부이 驗험 흐야 庫고 히 녀허 버 親친 人인 의 괴지
흐야 알기 들기 드리고 조초 내 엿는 銀은 兩兩을

을보고실상을마르려陳된보고하거든官관司

스법리를準순하야검함을免면하이라○물

릿檢檢驗험흐애비록血血屬속이이셔검함을

免면스스로목뒤야돌기하야디라하나또호도

름이그屍시首슈처엄터히이시며업슴을슬

피고보야호로可가히문장을바들떠니라

覆檢官의檢驗을依上施行라○覆檢官의或恐

前官怨恨不敢異同或或因犯者富豪不肯闕

釋或或觀望上官之批語以爲從違或描寫向

來之成案以完已事倘有毫髮冤情其罪

一重於初審라이 나 ○ 待上司批回야給屍埋葬라

覆복檢검官官판이檢검驗驗형형을우대로호야이우

말이라현이론호施사行행호라 ○ 覆복檢검官官판이

或혹前前官官판초검판이怨원恨恨호호까지저허敢

감히異이同동티못호며或혹犯犯범범호호者者一富

부豪호호음을因인호야즐거開기釋釋분명이말

디아니호며或혹上상官官판의데스를觀觀望望

호야씨從宗違위상스기거나데로삼으며

或혹向向來來의成成案案안초검문을모셔벗겨

버내일만못太려호나니만일毫호髮발안티나

變 스스 로 속 으 며 죽 기 를 넘 음 기 술 보 히 분
 변 하 야 되 예 히 기 록 호 디 或 후 다 른 違 위 端
 든 이 의 서 잡 아 定 명 치 어 려 온 디 리 이 엿 거
 든 인 유 례 又 초 아 바 들 고 큰 조 단 흠 을 험 의

치말

凡傷處 를 看其大小 하 量見分寸 고 又看幾處 1 皆

可致命 도 이 라 只指定重要害一處致命身歿 라 ○聚

衆打人 이 最難定致命痕 이 如死人身上 에 有兩痕

디 호 皆可致命 오 이 此兩痕 이 若是一人下手則無害 이

와 너 若是兩人則一人 은 償命 오 이 一人 은 不償命 니 이 須

於兩痕中 에 斟酌最重者 야 爲致命 라 호

를 잇 傷 상 處 히 룬 그 대 커 小 소 룬 보 아 分 분 寸 寸 恣

을자혀보고또보아멋곳이다可가히致티命명
 ㅎ얍즉홀띠라도다만要요害해호호곳에致티
 命명身신歿소흠을指지定명호야귀등호라○
 증인을모화사름틴거시及장致티命명痕흔은
 定명호기어려우너만일歿소人인의身신上상
 에兩양痕흔이이시되다可가히致티命명호얍
 즉호고이두상흔이만일이호사름의손지음이
 면害해로움이업거니와두상흔이다호사름의
 兩양痕흔이다호사름의
분변티아너도해로
 음이업면말이라만일이두사름이랴이면一
 일人인은償상命명호고一일人인은償상命명

을 못 혼이니 모름이 두 상 혼申 용에 又 장 重 守 호

者 자 를 斟 酌 查 究 야 致 타 命 命 을 삼 으 라

○ 檢 驗 이 非 徒 檢 傷 處 而 已 라 口 眼 開 閉 手 脚

奉 散 等 許 多 形 症 俱 係 緊 要 凡 沿 身 上 下 遍

勿 論 完 全 傷 損 政 有 可 以 証 明 實 因 則 理 當 逐 錄

於 屍 痕 名 目 之 中 而 道 未 京 外 檢 去 則 理 當 逐 錄

○ 傷 處 外 亦 併 以 一 全 字 混 雜 而 止 惟 之 一 處

古 人 作 法 之 意 耶 十 司 民 命 者 一 宜 致 詳 焉 卽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산 等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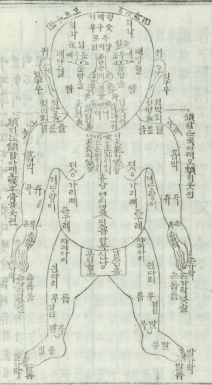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 檢 口 眼 之 開 閉 及 手 脚 之 攣 散

야 괴 록 홀 만 흥 너 이 었 디 냷 사 름 의 작 작 법 법
호 뜻 이 리 오 民 命 명 々 음 아 는 者 자 1 맛 당
히 즈 세 홀 을 극
진 이 홀 며 너 라

仰安面



耳垂

耳垂俞 귀 아래 드리운 것 ○ 옥청

耳竅

귀구멍

兩

방

兩

鼻

梁

鼻準

리

鼻準

鼻竅

무

人中

입시울

우하

上

下

唇

吻

上

下

牙

齒

上

下

唇

吻

吻

牙

齒

牙

齒

舌

舌

舌

舌

舌

頷

頷

頷

頷

咽

咽

咽

咽

咽

頷

頷

頷

頷

咽

咽

咽

咽

咽

食

氣

食

氣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

兩旁肩 膊 腕 肘 腕 肘 腕 肘

兩旁腋 脇 臑 肘 腋 脇 臑 肘

○속칭이
두랑이

兩旁臑 膊 肱 肘 臑 膊 肱 肘

一 伸 伸 伸 伸 伸 伸 伸 伸
일 云 云 云 云 云 云 云 云

手 心 心 心 心 心 心 心

手 指 指 指 指 指 指 指

手 指 指 指 指 指 指 指

뜻 솔 락
모 힌 락

兩 旁 乳 乳 乳 乳 乳 乳 乳 乳

兩 旁 脰 脰 脰 脰 脰 脰 脰 脰

兩 旁 脰 脰 脰 脰 脰 脰 脰 脰

兩 旁 脰 脰 脰 脰 脰 脰 脰 脰

兩 旁 手 手 手 手 手 手 手 手

兩 旁 手 手 手 手 手 手 手 手

兩 旁 手 手 手 手 手 手 手 手

兩 旁 手 手 手 手 手 手 手 手

兩 旁 手 手 手 手 手 手 手 手

胸 膈 膈 膈 膈 膈 膈 膈

胸 膈 膈 膈 膈 膈 膈 膈

心 심坎 감

胸 오 흉 당 안
래 오肚 두腹

肚 두腹 복

心 심坎 감 아
래 나 곳 대 데

부 우 오 속
칭 명 라

복

兩 양肋 륵

뼈 가 리

兩 양脇 협

肋 륵 아 래 뼈
업 느 티 오 속

臍 제肚 두

잇 글 게 너 곳
下 하腹 복

구 칭 존
레

兩 양胯 파

腿 의 상 이
오脇 하 하

莖 物 들腎 신囊 낭
부

귀 아 미
속 칭 자

음 人 인 은 陰
戶 호

兩 양腿 퇴

무릎 우 히 너
오 속 칭 심 다

兩 양膝 슬

종 아 리 우 옛
미 티 오 두 무

라

릅

兩 양膝 결

무릎 아
래 오 반

兩 양脚 각

완 아 래
아 래 파 클

우 목

속 칭
말 목

兩脚 卍面 卍

足 卍趾 卍甲 卍

등 받음

足 卍趾 卍

받음

腦^노後^후

百^百骨^骨會^會後^後頭^頭
○속칭막뒤

髮^발際^際

목과머리터
력이잇다흔

兩^兩傍^傍耳^이根^근

속칭귀
뒤잇

귀

項^향頸^경

項^項骨^骨은^은목^목頸^頸
뒤히나거

兩^兩傍^傍臂^비膊^박

뒤
잇게

兩^兩傍^傍手^수腕^완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兩^兩傍^傍肘^주腋^액

폴^폴두^두뒤
○속칭

手^수指^지腕^완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兩^兩傍^傍手^수指^지背^배甲^갑

兩^兩傍^傍手^수指^지背^배甲^갑

手^수指^지背^배甲^갑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脊^척脊^척脊^척

脊^척骨^骨은^은등^등에^에잇^잇는^는고^고

脊^척背^배甲^갑

脊^척骨^骨은^은등^등에^에잇^잇는^는고^고

脊^척脊^척脊^척

脊^척骨^骨은^은등^등에^에잇^잇는^는고^고

○속칭등^등마^마리^리두^두

兩^兩傍^傍後^후脊^척肋^척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兩^兩傍^傍後^후脊^척肋^척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兩^兩傍^傍後^후脊^척肋^척

見^見腕^완上^上兩^兩傍^傍手^수腕^완

腰^요眼^안

허^허리^리左^좌자^자右^右
두^두오^오목^목끼^끼던

兩旁腎

門

兩旁

腿

見

上

穀

道

門

兩旁

腿

見

兩旁

脚

狀

如

兩旁

腿

狀

如

兩旁

脚

狀

如

兩旁

腿

狀

如

兩旁

脚

狀

如

兩旁

腿

狀

如

兩旁

脚

狀

如

兩旁

腿

狀

如

兩旁

脚

狀

如

兩旁

腿

狀

如

足

趾

肚

狀

足

趾

狀

如

檢屍

隨

卽

定

立

時

刻

正

官

檢屍

隨

卽

定

立

時

刻

正

官

慣熟作行人叶就賞屍帳三幅正速詣停屍去

處叶呼集應合聽驗人叶并行凶人等叶躬親監

視叶對衆眼同叶自上至下叶一分明仔細檢

驗叶指說沿身應有傷損叶劃時於屍帳上叶比

對叶標寫長濶深淺各各分數叶定執端的要害

致命根因正檢屍官吏叶於上叶署押叶一幅正

給付苦主正一幅正粘連入卷正一幅正申連本

管上司正仍取苦主叶并聽檢人等叶着押甘結

正犯人某干犯人某看証人某地鄰人某主
斗首某處親某作行人某列名著押於下右

上行之

檢屍時 息여 즉시 時時刻刻을 定명 立립호

고

초검관은 권고의 소지명호에 물던 호야세
우고복검관은 초검관의 이문바듬세로세

헛다나관문이라 正정官관이 首슈領령官官吏

리와 닉은 件오 作작行행人인을 引인호야 尸

屍시 帳帳三삼幅幅부를 卞가지고 號호停停屍

시 호곳에 나아가 응당히 검험에 령령호사 름

과 아오로 行행凶흉人인 等등을 불너 모도 아

몸소 親친히 監監호야 슬피 되 증인을 對對호

야 眼안同동호야 우부러 아래서 지 낫 낫티 分

분 明明호며 仔下細細히 檢檢驗驗호야 물을

일홀두어甘苦結別宮을取취호라 법인인某

모주나犯人인某모者간證동人인某모地

모 neighboring 人인某모主會首유某모屍시親친某

件과우회列列名명호야일홀두이라

右件前項致命根因을凡有脫漏不實하符同捏

合하增減屍傷은情願甘伏罪責無辭하아保

結是實하

右우件前項하 상항이 致命命명호根

근因인을를잇脫할漏루 又초과목디아호야

實살답디아나호며 단말이 符符同동

서르부합호
호야꾸며 습합호며
거 좃말노사

호야꾸며 습합호며
여 린드린말

라 이屍사의상쳐롤더호며덜홈이잇거든情정

願 원으로罪 죄責責을甘 감伏 복호고말솜이

업소리라호야감결에保 보두어이實 실게호

라 검사판리그감결이략
실홈을보두단말이라

某年某月某日司吏某着押

首領官某着押
檢屍官某着押

某모年年某모月월某모日日司吏司吏某모

着押押

首介領官관某모着押압

某모平평某모檢官屍시官관正某모着押압

押압

若當場야認定行凶致命事情明白者則於屍

帳上에明白標寫行凶正犯某人이畫字고

事情疑似고首從未分者는標寫被告行凶人

이畫字고

만일當場야行凶중致死命명호

事는情정이明明白히함을아라定명호者

호는屍시帳당上상에明明白히行凶

홍호正정犯某모人인이라標표호야서
일홍두이고事々情情이疑의似々호고首
슈와從從을분변티못호는者々는被피告
고호行형凶홍人인이라標표寫샤호야일
홍두이라

關文式

具銜호某年月日時호準某人牒訴호卽引司吏某
人件作某人等호起程前去호至某日時호到某縣
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호呼集合衆人等호
當藏호躬親監視호對衆眼同호依例用法物호自

上至下。翻轉。一一仔細分明定驗得。就於屍

帳上。逐一比對。標寫。取件作某人。並無增

減不實移易輕重。甘結文狀。並責屍親某人

行凶某人及應叅檢人等。各各證驗執結文狀。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委係端的。將屍首

遮蓋灰封。青里正等用心看管。無致虫鼠傷

殘。合叅檢人等。差人管領。移關覆檢官云云

라라

關文문구식이라 상소에 관 유함이라

직함을 초고某도 年년 月월 日日 時시에 某도

上 상 에 낫 낫 치 所 소 라 가 며 다 혀 마 초 아 標 표 寫 寫 書 書

호 고 作 作 某 모 人 인 의 게 더 호 며 덜 호 야 실

답 디 아 나 호 며 輕 輕 호 며 重 重 흥 흥 을 음 기 며 밧 밧 고

마 다 업 노 라 호 는 감 감 結 結 文 文 狀 狀 결함을 잘 못 호 었 거

든 죄 를 당 호 리 라 호 는 다 짐 이 라 을 밧 밧 고 아 오 로 屍 屍 시 親 親 某 모

人 인 과 行 行 凶 凶 흥 흥 某 모 人 인 과 밧 밧 응 당 감 驗 驗 에 참

여 호 사 辱 辱 들 의 各 各 各 各 證 證 驗 驗 호 야 定 定 집 집 호

엿 노 라 호 는 감 감 結 結 文 文 狀 狀 을 다 밧 밧 고 某 모 人

인 屍 屍 시 首 首 首 의 致 致 命 命 호 根 根 因 因 안 이 실 노 端

단 的 的 호 기 에 미 여 실 을 定 定 驗 驗 호 고 屍 屍 시 首

슈를가적마리와답허灰회封봉하고로리正정
等을의게다짐바다只음써보슬퍼맛다虫충鼠
셔의傷상殘잔흙을닐위디말게하고합당히검
험에참에홀사름들을사름을치덩야맛다거
느리게하고간슈호覆부檢검官관의게移이關
관云云云이라하라

○初檢訖에不行申報고急速差人야行移附近

不干碍官司야請來覆檢고初檢官이回避라○

○覆檢官檢驗等項을亦遵此例호稱某年月日

에準某處公文야某時起程云云라○○京則刑

曹이因殺人投狀하移文京兆이京兆이先令

當部로初檢하京兆郎이覆檢하若三檢則刑曹

草記舉行라

○ 初초檢甘을只忖애申上報보김시문장을
상소에보함

라이 하기를기드리디 못하고急급速속히사름

을시거附부近근에干간碍애잇거身신이나

干干連連하야防방碍애로온사름이라 티아닌官관司소의게行

○ 行移이하야請청하야와覆복檢甘하고初초

檢甘官관이回회避피복김안과서근보
하라

○ 覆복檢甘官관이檢甘驗驗하느등項

항여러가디 절목이라 을또호이법례대로호디某도年
년월일에某도處처공공文문을빙준호
야某도時시에길셔넛노라云云호라○
京경은刑형曹조 | 사름죽엇다호는소지
명흠을困인호야京경兆조에移이文문호야
든京경兆조 | 몬져當當部부로호여음初초
檢검호고京경兆조랑관이覆복檢검호디만
일삼檢검을호면刑형曹조 | 草초記기호
고舉거行행호는니라

曾以刑殺人者其罪極重也

大正樂利發財之方其世

三書餘日言也但所書

是日可正京也其公首

正京也其書也其書也

其書也其書也其書也

其書也其書也其書也

其書也其書也其書也

其書也其書也其書也

增修無冤錄解卷之一

增修無冤錄諺解卷之二

條例

丘母과 법례라

胎傷歿

婦人。有胎孕不明致歿者_은。檢驗後_에。令收生

婆_로。驗腹內_라。若有胎孕_면。心下至臍肚_히。以手拍

之_면。堅如鐵石_고。如無_면。卽軟_다。又勒收生婆_야。定

驗產門內_에。有無他物_라。○產門_에。血水惡物_의。流

出_면。驗是產子不下致命身歿_면。或是有妊_면。用

毒藥_야。墮胎致命身歿_면。當用銀釵入產門試看_라。

胎死傷胎死야 죽은 거시라

婦夫人인 이胎死孕死이 분명티 못호고致티死

소호者자 잇거든檢日驗함호後후에收收유生

성婆과 근히 산 시기 는로호여 음腹복內內를驗

함호라 만일胎死孕死이 이시면心심下하로臍

肚肚에너르히손으로버두드리면돈돈키鐵

錫石석又고 만일업스면곳우루니또收收유生성

婆가를시겨產산門門內內에他物物들이이시

며업슴을定定驗함호라○產산門門에血혈水

슈와惡의物物들이흘러나면驗함함에이느子子

胎產_산하다가 나지 못하_고 致_리 命_명하야 身_신
 死_스 息_이 어나 或_혹 이 不_식 比_비 미 이 심애 毒_독 藥_약
 藥_약 을 卽_즉 胎_태 吐_토 를 舐_舐 르려 致_치 命_명하야 身_신 死_스
 息_이 나 맛 당히 銀_은 은 釵_차 를 卽_즉 產_산 門_문 에 녀_녀 허
 시_시 驗_험 하야 보라 中_中 毒_毒 毒_毒 毒_毒 門_門 門_門 門_門 에 녀_녀 不_不 可_可 回_回 轉_轉 也_也 니라

驗_驗 小_小 兒_兒 胞_胞 胎_胎 에 令_令 收_收 生_生 婆_婆 로 定_定 驗_驗 月_月 數_數 하 定_定 成_成 人_人 形_形

나 或_或 未_未 成_成 形_形 하 責_責 狀_狀 附_附 案_案 하 ○ 見_見 一_一 在_在 母_母 腹_腹 中_中 하

被_被 驚_驚 後_後 死_死 胎_胎 下_下 者_者 는 胞_胞 衣_衣 紫_紫 黑_黑 色_色 오 血_血 癢_癢 軟_軟 弱_弱 고 生_生

下_下 腹_腹 外_外 死_死 者_者 는 其_其 屍_屍 一_一 淡_淡 紅_紅 赤_赤 하 無_無 紫_紫 黑_黑 色_色 고 胞_胞 衣_衣

白_白 하 若_若 月_月 未_未 足_足 者_者 는 其_其 身_身 體_體 에 必_必 有_有 生_生 未_未 全_全 處_處 나 仍_仍

曾_曾 參_參 無_無 記_記 錄_錄 卷_卷 第_第 二_二

集產婆驗之法○胎子落者按五臟論一月

如珠露二月如桃花三月男女分四

月形像具五月筋骨成六月毛髮

生十月滿足若未成形像只作血肉

一片或一塊若經日久壞爛多化為惡水

若墮胎已成形像者謂頭腦口眼耳鼻手脚指甲

等全者亦有臍帶之類○有孕婦被殺

或因產子不下身死屍經理地窖因地水火

風吹屍首脹滿骨節縫開逐出腹內胎孩

一孕婦頰愈入棺一孕婦覆檢之
計後並未經理察引胎亦自出

小兒。의胞로胎티를驗함함애收生生婆
파로호여곰月월數수를定명驗함함여人인形
형이일윗거나或후일우디못함을定명함야문
장에다짐바다문안에부티라○見。一母모腹
복中中에이셔놀란後후에歿胎티一난者자
노胞로衣의검붉으며넘은빛치오피미티고軟
연弱약하고사라비밧거나셔죽은者자노그屍
시一淡담히붉거나검붉어淡담히검붉
안말이라검은빛
치업고胞로衣의희디만일들이足족디못호者
자노그身身體태애반드시삼기미은전티못호

곳이잇느니仍임호야産산婆과를모화증험호
 라○胎子子디운者자를五오臟장論론에按
 안호니一일月월에느珠露로_{이슬이동글게}
 又고二이月월에느桃도花화又고三삼月월에
 느男남女녀一느호이고四四月월에느形형像
 상이又초이고五오月월에느힘줄과 뼈이고六
 육月월에느毛모髮발이나고七七月월에느滿
 만足속호느니만일形형像상이일우디못호거
 슨다만血혈肉육호조각이어나或혹호덩이되
 디만일날이오라들디내야상호면만히化화호

야惡의水俞_一되느니라만일혀러딘胎_티이_의

形_형像_상이일운者_자는頭_두腦_노와口_구眼_안

과耳_이鼻_비와手_수脚_각과指_지甲_갑等_등이온

전호者_자를닐음이오또호臍_제帶_띠_이라_의類_류

류_一잇느니라○有_유孕_임婦_부一_一죽_임을_넘거

나或_혹조식_낫타가나티못호고죽은시_신을_地

더_窒포_이라_대에_못기_를다_내면_싸히_水俞_火화_風

풍_이屍_시首_수를_부러_脹滿_안息_을因_인호_야

骨_골節_절縫_봉_이라_도인_곳이_라이_열너_여腹_수內_내

너_에胎_타核_핵히_를쫓_차내_느니_라_호孕_임婦_부는_죽어_야

醫方類聚卷之二十一

入 曰 棉 在 宮 且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에 曰 天 氣 未 吉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孕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須 知 胎 孕 之 必 有 衣 履 胎 氣 所 致 或 有 結 成
 成 形 如 蛇 等 則 愛 異 氣 所 致 或 有 結 成
 鬼 胎 者 此 不
 可 不 辨 也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可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又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此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者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者 曰 胎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陰 曰 氣 和 宜 孕 婦 十 二 積 未 檢 且 宜 後 孕

가리
나리

勒繪歿

凡檢自繪之屍。先要見得在甚地分甚街巷甚人

家。何人。見本人。自用甚物。於甚處搭過。

或作十字歿。積繫定。或於項下。作活積套。

却驗所着衣新舊。打量身四至處甚物。面覷甚

處。背向甚處。其歿人。用甚物踏。上量頭

懸。與所弔處。相去若干尺寸。下量脚下。至

地相去若干尺寸。或所繪處。雖低。亦看頭上

懸掛索處。下至所離處。並量相去若干尺寸。

對衆解下하仍扛屍於露明處고方解脫自縊套繩

時하通量長若干尺寸하量圍喉下套繩圍長若干고

自項下交圍로量耳後髮際起處濶狹橫斜長短고

然後에依法檢驗라○凡檢自縊人에元問元申人

時호其身死人이是何色目人이見時早晚하曾與不

曾解下救應하如曾解下救應은即問解下에有

氣脉無氣脉하解下에約多少時死하申官時早晚

時고如有人識認은即問自縊人이年若干하作何

經紀하家內에有甚人이却因何在此間自縊고若

是奴僕은先問雇主하討契書辨驗하仍看契上

에 有 無 親 戚 라 하 ○ 若 經 泥 雨 은 이 須 看 死 人 이 赤 脚

或 着 鞋 와 其 踏 上 處 에 有 無 印 下 脚 跡 라 하

勒 辱 繪 辱 하 야 죽 은 거 시 라 지 아 나 거 시 오

繼 續 은 막 야
란 거 시 라

를 잇 슴 조 繪 辱 屍 體 시 를 검 험 함 애 몬 져 모 름 이

므 슴 地 分 면 이 라 분 면 이 라 이 며 므 슴 街 巷 항 이 이 며

므 슴 사 룸 의 집 에 이 심 을 보 며 엇 더 호 사 룸 이 보

너 本 人 인 인 인 이 라 호 시 이 스 스 로 므 스 거 슬 버 므

슴 곳 에 걸 려 시 더 或 혹 十 十 字 字 조 單 單 繫 帶 라 와

次 積 積 積 조 積 積 조 로 리 얏 거 나 或 或 項 項 項 조 下 下

에活활積積套套로活套로를頭두작작호호얏얏던고호

고단계와소도와활로는아래와엇는나라문득남은바웃시세며

음을驗험호고시신四스至자處처에므슴物물

되스면기시라이틀자히며호츠츠므슴므물을향호야

시며등은므슴곳을向향호야시며그歿스人

이므슴物물을베드디고을낫던고호고우호로

머리돌닌거시미얏는디고결린와相상去去거

언마尺척寸촌임을자히며아래발아래로싸히

니르히相상去去거언마尺척寸촌임을자히디

或혹목민바곳이비록느즈나소호보아머리우

희노홀득라건곳으로 아래편느곳에너르히相

상去기 一 언마尺척寸촌임을아오로자히고야

드곳이느스면노된뒤부러싸히너르
히상계언마나홀을모도자히기라
여러사람

을對던흐야푸러느리와仍잉흐야屍시를한디

복은곳에드러노코보야흐로自저縊워호套로

繩승을푸러벗겨내야기리언마尺척寸촌임을

通통흐야자히며
목리얏던노온기리
喉후下하

에들니인套로繩승이들운기리언마히물자히

고
목에감기엇던기리
項항下하에마조돈디로

부터耳이後후髮髮際제에올나간디
스지
호노

히 항_후로 서_서아 조_조도 라_라와 우_우이 濶_闊활 狹_狹협 이_이며 橫_橫

후_후발_발새_새서_서울_울나_나기_기는_는나_나라_라 斜_斜야_야 一_一며 長_長당_當短_短단_단을_을자_자히_히고

을_을자_자히_히 然_然연_연後_後후_후에_에法_法법_법대_대로_로檢_檢검_검驗_驗험_험하_하라_라 ○

를_를잇_잇自_自不_不繪_繪의_의人_人인_인을_을검_검험_험함_함에_에몬_몬져_져元_元원_원申_申신

人_人인_인 처_처임_임발_발장_장호_호 의_의게_게무_무르_르디_디고_고身_身신_신死_死사_사人_人인_인

이_이이_이므_므슴_슴色_色식_식目_目목_목엿_엿사_사름_름이_이며_며본_본새_새어_어는_는제_제며

일_일즉_즉푸_푸러_러는_는리_리와_와救_救구_구應_應응_응을_을흐_흐얏_얏던_던다_다아_아닌_닌다

하_하야_야만_만일_일에_에일_일즉_즉푸_푸러_러는_는리_리와_와救_救구_구應_應응_응을_을흐_흐얏_얏거

든_든곳_곳무_무르_르디_디푸_푸러_러는_는리_리우_우매_매氣_氣기_기脉_脉맥_맥위_위이_이잇_잇던_던가

氣_氣기_기脉_脉맥_맥위_위이_이업_업던_던가_가흐_흐며_며푸_푸러_러는_는리_리와_와혜_혜오_오건_건대

몇時사나흐야죽어시며관소에고호써어느션

고호고만일사름이아느니잇기든곳무르디自

자繪^화의人인의나히언마며므슴經^경紀^기의^소業^업

라^이를^작작^하며집안히므슴사름이이시며문득

무어슬^인인^하야여귀이셔自^자繪^화의^화야^야느고

호고만일이^奴노^僕부이어든몬져雇^고주^주리^부

이^연주^인를^무러^契계^書서^文를^太자^내여^辨

辨^驗함^호디^노부^인가^상고^함아^라닌^仍인^하야^문권^우회

親^친戚^척의^친이^이시며^업슴을^보라○만

일^즐며^비를^디내^엇기^든모^름이^쓰스^人인^이발

버서시며 或 후 산을 신어 심과 그 드 뒤 고 오 른 곳
에 박히 인 발자 최 이 시 며 업 숨을 보 라

自縊死

有活套頭 灰套頭 單繫十字

纏繞縊 須看灰人 脚踏甚物 入頭 在繩套

內 須垂得繩套 寬入頭 方是 須有踏物

上縊處跡 由 自縊 須高八尺以上 兩

脚 懸虛 所踏物 須倍高如懸虛處 項痕

不匝 勿論楣樑枋桁 塵土 多 藜亂 方是

如只有一路 無塵亂 不是自縊

스스로縊 活套 頭

手不能攀及不能上則是別人手起라니更看所繫處

物伸縮라須是頭라墜下라去上頭繫處라一尺以

上라方是頭라緊抵上頭라定是別人手

起라單字繫系라十字字字는공똥에돌녀사보야흐로

可기히죽을거시오발똥치잠간씩히너르러시

면또호죽다악나흐느니라歎스人인이몬져스

스로노히나씩로버스스로목우희린後후에스

스로손으로버놉흔디미느니모름이이몬져스

생頭字

上상面면이관말의너문보히

나스승내모에노민곳이라에미엇는

과塵 塵土로

진토로리턴흔적
을보랴흠이라

와 및 歿 소인 이

어디와므슴거슬드티엿던고 보라스스로손으

로써 上 상 向 向

머리우회고초
를나간노하라

호노머리롤더듬

어디염즉호야사보야호로올코만일이호상面

면에繩繩頭두린곳이或후놓거나或후크거나

호야손이능히안디디못호며能히오르디

못호얍즉호면이느다른사름의미야둔거시너

라다시민거시퍼이며주리허심을보라모름이

이머리드리위느려더웃편민곳에서쓰기호자

以 上 상 이 라 사 보 야 호 로 올 코 만 일 이 머 리 상

상頭우에緊固히다 하시면定당코이다 른사람
이마야든거시니라

○纏繞繫는是死人。先將繩帶야纏繞項上兩遭

고自踏高야繫在上面고垂身致死니。或是先繫

繩帶在樑棟或樹枝上야雙積垂下고踏高入頭在

積內고更纏過一兩遭고其痕。成兩路고上一路

는纏過耳後야斜入髮際고下一路는半遠項야

檢其相疊與分開處고作兩截야量盡取頭了에畫

取樣子고更將繞繫處繩帶야比並濶狹라。

纏繞繫는이死人인 이몬저노히나셔

상疊립하여 다 및 분闊의 호곳을 그노히포답

과갈너에도 라檢검호되 兩양截절 둘에네단을민

드라 자히기를 못고 아웃 취홈에 樣양子下

라이를그리고 노히나석로목에감앗던흔적이

가야가 각자히고 크시히본견양두 아웃 다시들

너미엇던 노히나 석를 가져 넣으며 좁음을 견조

아다히라 흔적의 넓으며 좁음이 라

○用繩帶索帛 자自縊者 는繫縛處 口交至左右耳

後 호深紫色 오或黑瘀色 나或作黑瘀跡 호眼合

고唇口 黑唇開手握齒露 라○自縊在喉上則

口閉_고牙關_이。緊_고舌_이。抵齒_고喉下則口闊_고舌
 出二分或三分_고口吻及胸前_이。有涎沫滴_고大拇
 指_의兩脚尖。直垂下_고腿_上에。有血癢_의如火灸
 斑痕_고肚下及小腹。皆墜下_의青黑色_오。大小便
 自出_고面帶紫赤色_이。○大腸頭_에或有一兩
 點血_이。○結締在喉下_고前面痕分數_이較深_이
 者○縊痕。直至左右耳後髮際_에橫長_이。九寸以
 上_로至一尺以來_라。○低處。如床檔船倉火爐_는
 須高二三尺_면亦可縊死_니身卧其下_의或側或覆
 側卧_면其痕_이偏斜起_의橫喉下_고覆卧_면其痕

正在喉下立起於耳邊立多不至腦後髮際立○

脚。虛則喉下勒。深立實則淺立人。肥則勒深

頭瘦則淺立用細緊麻繩草索立在高處自縊立懸

頭頓身致死則痕跡。深立若用全幅帛及白練項

帕等物立又在低處縊則痕深分寸。較淺立○

發痕不見則須看頂上喉肉硬也○凡檢驗

自縊人立未辨仔細立不可定驗作自縊致命立只

可以喉上喉下繩索大小立比對形症立仔細開錄

立以防死人立別有枉橫立以結項致死立懸實因

立以備前頭查辨立且如生前勒立未死間立手起

假作自縊此稍難辨。或有人睡着被人將

繩索勒咽喉弔起身死其檢驗官司如何見

得是自縊身死的實宜仔細也。即勒未死而

弔勒兩痕相似然則兩痕俱深。或紫或白相半其血癢者大約不同。其

色或紫或白相半其血癢者大約不同。其

紫則血癢多而白則無癢。自縊亦如之

此則自縊被縊之明易辨者。詳懸實因勿用

勿用刃傷實因此例。○屍首一日久壞爛頭弔在上

屍側在地肉潰見骨。但驗所弔頭弔其繩

若入槽及驗兩手腕骨頭腦骨皆赤色者

是則入註... 兩手... 繪... 者... 珠...

노히나씩나숫치나김으로배自不繪의호者珠

느민곳아갓고 갓교는이숫치머리가 하야左

右우耳아後후에너르러시되갑히검붉은빛치

오或혹검게피리틴빛치어나或혹검게피리틴

자최되고 글은노는아흔곳은點點 눈이좁기고

입시울과입이검고입시울이열나고손이주이

고너드러났느니라 ○自不繪의호거시숨통우

희이시면입이닷티엇고너다문거시돈도하고

혀가니에다딜벗고 혀주리혀숫치니에다하심

물엿고 혀나오지 숨통아래면입이 열나고 혀나
 아나 아나 혀나라 지 숨통아래면입이 열나고 혀나
 오기를 二의 分분이나 或혹은 三分 분이나 호고
 입어 귀와 멧胸 후 前전에 춤거 품드 른거 시 잇고
 엄지손가락과 두발 삿치고 초드리웠고 신다리
 우희피리림이 이시 더불노 쓴 斑痕 혼조고 肚
 두下하와 멧小 小腹 부이 다쳐 더느려시 더 잇수
 이드러 러 더고로 요 부 프르고 검은 빗치오 대 大 小
 小 便 변 이 스스로 나왔고 늦치 검은며 붉은 빗
 즐익었느니라 ○ 大 大 腸 장 頭 두 항문 에 或혹은
 두點 점 피잇느니라 ○ 門 거 시 숨통아래 잇고 前

흔적이 희더 빛기 너러나 숨통아래로 무르갓고

엄더져 누어 시면 그 흔적이 발나 숨통아래 이시

디 투이 변변에 서너러 낮고 만히 腦노後후髮髮발

際제에 느느디 야나 현느니라 ○발이 虛허하

흐면 숨통아래 勒득이 겁고 實실현현고 虛허하
느발

이공등에 돌나 인거 서오유
실은 발이 여하다 흔거 사라 사름이 슬디면 勒득

이 겁고 여외면 엇고 무늘고 된삼노히나 슯츠로

배놓흔곳에서 自조縊획호야 머리 돌돌고 몸을

굴러 致타死사흐면 痕흔跡적이 겁고 만일은 幅

부 겁이나 白백練련현 현項항帕파 머리等등

首_수슈_수나_나날_날이_이오_오라_라야_야문_문허_허녀_녀석_석어_어머_머리_리돌_돌니_니여_여우_우

희_희잇_잇고_고屍_사사_사기_기우_우러_러녀_녀싸_싸히_히이_이셔_셔슬_슬히_히허_허여_여디_디며

뼈_뼈뵈_뵈거_거든_든다_다만_만돌_돌닌_닌바_바머_머리_리를_를보_보라_라그_그노_노하_하糟_조조

에_에듬_듬조_조르_르니_니精조는 洗세 寬전 箕록에 작 精조

러_러박_박히_히임_임이_이흥_흥통_통이_이라_라잇_잇두_두손_손목_목뼈_뼈와_와頭_두腦_노도_도

뼈_뼈를_를보_보라_라다_다북_북은_은빛_빛친_친者_자나_나아_아니_니라_라후나 骨되

잇_잇고_고잇_잇십_십指_지지_지뿔_뿔치_치뻘_뻘다_다북_북은_은재_재이_이라_라아_아니_니라_라

○이_이는_는自_자조_조繼_계의_의과_과被_피피_피繼_계의_의을_을의_의론_론흥_흥이_이아_아하_하니_니라_라

自_자勒_력死_사 其_기屍_시 兩_양眼_안이_이合_합고_고唇_순皮_피開_개露_로齒_치고_고咬_아舌_혀出_출

一分_{一分}至_至二分_{二分}고_고肉_육色_색이_이黃_황고_고形_형이_이瘦_췌劣_劣고_고兩_양手_수一_一拳_권

握^고臀後^에有糞出^고左右手內^에多是把自繫物

色^도至繫緊^라死後^도亦只在手內^에須量兩手拳

相去幾尺寸^라○曾被救解而死者^는其屍一肚脹

多口不咬舌^고臀後^에無糞^라

스스로 졸라 죽은 거시라 병든을 인하여 스스로 죽지 못하기도 하니

라 그屍시 두눈이 굵기고 입시 울이 열나고

드러나고 혀를 무러나옴이 일 분으로 이

분분 에 나르고 슬 빗치 누르고 열골이 여외여 파

려고 두손이 움 쥐엿고 臀 後 후 에 糞 分 分 나옴

이 잇고 左 右 手 俞 안 히 만 히 이 스스로 민 거

슬 하리노 잡아 시디미마緊고 하기에 너룬디라 죽

은後 후에 도또호오직손안하잇는니모름이두

손주먹진相法去기 되것잡은두 언마尺 척寸

손을자히라○일속救구하야풀기를납고죽은

者자느그屍시 | 肚두 | 脹창고입에혀롤무

디아닌거시만코譬는後 후에糞분이업는니라

殺人勒死 項下索子 | 交過 고 并手指甲 이 抓損 이

라 ○本屍 | 口開眼瞪 고 項上勒痕 이 黑色 이 食氣

嗓 이 塌 고 項痕 이 交匪 이 委是被勒死 라 | 나 ○被

人打損勒死者 는 被勒處喉下黑跡 이 只可六七寸

以來レ即不至項後レ臀後レ糞出多レ被人勒死

者レ口眼レ開レ兩拳レ散レ頭鬢寬レ喉下黑痕

○週圍一尺以來レ○檢項索纏繞過度數レ多是

於項後當正レ或偏左右繫定レ須有繫不盡垂

頭處レ○其屍レ合面地卧レ為被勒時爭命レ

是揉撲得レ頭髮或髻レ散慢レ或沿身上レ有磕

擦痕レ○被人隔物レ或窻櫺或林木之類レ勒

死レ偽作自縊則繩不交レ喉下痕レ多平過レ却

極深レ黑濈色レ亦不起於耳後髮際レ相レ有痕不

交レ者レ引レ唯隔レ○絞勒喉下死者レ結締レ交在死

人項後고兩手고不垂下고縱垂下나亦不直고或

把衫襟擱着면이卽喉下에有衣衫領痕跡黑色나

是要害處라氣悶身死라

님의게 줄너 여 죽은 거시라 목아래 索生子조

서르디 나 갖고 아오로 손톱이 허위여 상손호, 안

느니라 ○本본屍사 1 입을 버리고 눈을 직시호,

고 목우화민 혼적 이 검은 빛치오 食食氣키 嚙

이 깨디고 목에 혼적이 마 조도라 시면 실노아 님

의게 勸류 흠을 넘어 죽은 거시니라 별안식에 조

나오고 목에 혼적이도 ○님의게 마자 상호고 줄

나오고 목에 혼적이도 ○님의게 마자 상호고 줄

너여죽은者자는被_レ피勒_レ處_レ處_レ喉_レ후下_レ하에검

은자최다만可_レ가히六_レ륙七_レ칠寸_レ촌즈음어오곳

項_レ항後_レ후후에너르디아나호고맛고졸너어죽은
자노죽신타어영호

고로_レ결_은은흔적_이이목뒤_히히臀_은後_후후에糞_분분다음

이만코사름의게勒_를홀을남어죽은者_자자는다

는아_는는口_구구眼_안안이열나고두주먹이퍼다고상

되죽어디고숨통아래검은흔적_이週_유유圍_위위

일尺_척척즈음이니라○목에노감아들너간度_도도

數_수수번수란
말이라를檢_검검호라만히이項_항항後_후후에당

등_등등_호호_얏얏거나或_혹혹최위左_좌좌右_우우에_에미야시되모

롬이리고盡전타아녀뜻츨드리운거시이실디

나라^리고^나라^문 ○그屍^시 | ^합面^면으로^사히

누어^시면^목의^일애^에목^숨을^드로^아이^操유^撰

박^부의^고부^의 ^있단^말이^라 ^호디^라머^리러^려과^或혹^상되^호

러^디며^죽어^디고^或혹^身신^上상^애사^라가^며다

틸^니고^문타^인 ^흔적^이이^스리^나라 ○사^롬의^게

物^물을^隔격^하고^민거^시라^나 ^호인^거시^或혹^窓

窓^窓 ^위라^이나^或혹^林림^木부^類류^애즐^라속

인^거술^거 ^죽自^조 ^繪익^을삼^으면^노히^마조^지나

가^디아^넛고 ^物물^을 ^隔격^하야^緊긴^히 ^돌회^엿는^고 ^로알^히는^흔적^이 ^집고^뒤혀^는 ^흔

적의도라가디아넷는니라가死스人의 숨통

아래흔적이만히평평히디나시되左右우耳

際제에너른디아니야ハハ字字形형又든너라야문득극히갑고검고허

여딘빛치또호耳이後후髮발際제에셔나러나

디아넷는나라口목미야죽인거시口흔적이도라

가디아니호안는너라口○喉후下하를즐려죽

은者자느리즌거시歎스人인의목뒤히잇고두

손이드리위디우디아넷고비록드리원디원시

나또호곳디아니호고或후옷깃슬잡아다이저

시면곳喉후下하에옷깃痕흔跡적검은빛치잇

느니이 要요 害해 處처 一이라 귀운이 민식하야 주
은 거시니라

破人殺假作自縊

被行打勒殺者

口眼

多開

고

手散髻慢

고 喉下血脉

不行

痕跡

淺淡

야 無

血癢黑跡

고 舌不出

亦不抵齒

고 項上肉

有指

爪痕

고 身上

有要害致命傷損處

라

○

被拳踢

毆打死後

繫勒懸掛者

口眼

多開

고

手散髻

慢

고 身上

有要害傷損及喉下

有繫勒懸掛蹤

由

고 喉下

無血癢黑跡

고

舌不出

고

亦不抵齒

고

縛痕。雖深入皮

나

卽無青紫赤色

고

只是白痕

나

라 ○有用火篋야烙成痕의但紅色或焦赤호帶濕

不乾라어

늪의게 죽임납은 거슬거죽自不綸의하다作작
흙이라티고勒특야죽임을납은者자는口口
眼안이만히열니고손이혹터디고상되늑고喉
후下하에血혈脉맥이行행티못호논디라痕흔
跡적이엇고淡담호야피터린검은자최업고혜
나오디아니호고또호나에다티도아니코項項
上상肉肉애손톱흔적이잇고身신上상에要요
害해致티命명잇傷상損손호곳이잇느니라○

주먹맛고태이고毆구打타호야죽임을넘은後
 후에목의야드라걸탄者자는口구眼안이만히
 열니고손이흐터디고상되눓고身신上상양애要
 요害해엇傷傷損손이잇고잇喉후下하어리야
 드랏는자최잇고숨통아래파리틴검은자최업
 고혜나오다아니호고또호니에다리도아니코
 민흔적이비록갑허갓치드러가사나靑청紫자조
 赤적色색이업고다만이흰흔적이나라○火화
 籠비에프른대빈허를불
 면죽은후에숨통아래를지저다만紅홍色색이
 가조지익흔을민도거시라

어나或혹은고붙으디저음을섞엇고르디아

너하나라

移自縊屍

遷或外人於家中自縊其主人

移屍弔掛舊痕 이동야致有兩痕舊痕 은紫

赤有血瘡고移動은只白色無血瘡라이니○先以杖

子於所繫繩索上에輕輕敲야如緊直면이乃是

或寬慢면이卽是移屍라니

自縊의 屍 시를 옮기미라 或혹外人 스인

로 목야드라시면고主人인 이 屍 시를 옮겨 밧게
및 檢 감 驗 험 은 避 과 하려야 屍 시를 옮겨 밧게
네 야 야 屍 시를 옮겨드라 갈어시면 넛흔적 이
돈 거 시 라

음기여 두흔적 이 잇기 예 날 위 디 넷흔적은 김블
 고 북어 피리 팀이 잇고 음긴 거 슨 다 만 흰 빗치 오
 피리 팀이 업스 니라 ○ 몬 저 막 대 로 버 리 앓스 노
 우 희 輕 輕 輕 히 러 보 아 만 일 도 든 하 고 곳 곳 하
 면 이 에 올 코 處 서 물 음 기 지 或 후 디 닳 하 고 죽 으
 면 곳 이 음 긴 죽 엄 이 니 라 繼 의 호 야 숙 어 시 면 그
 엄 이 면 죽 고 주 리 헛스 니 라 노 히 평 평 하 고 음 긴 죽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